朝鮮日報

發行所 京城府三角町七一番地 朝鮮日報社 電話 二二五六番 振替口座京城四〇九九番
編輯兼發行人 [illegible] 印刷人 [illegible]
購讀料 / 廣告料 [illegible]

地主와 小作人(二)

國際勞働問題와 朝鮮의 勞資關係

現代에서 歐米勞働者의 程度를 言ᄒᆞ코저ᄒᆞ면 第一 그 智識이던지 技術이던지 能率이던지 人格이던지 何러가지 方面으로 ᄒᆞ지라도 그 資本主와 對等的 抗爭을 ᄒᆞᆯ만ᄒᆞᆫ 實力도 有ᄒᆞ고 또ᄂᆞᆫ 資本主라도 自己의 事業이나 其他 自己의 地位라 公儀이라 道德이라 ᄒᆞᄂᆞᆫ 各般 事情에 依ᄒᆞ야 그 內面에ᄂᆞᆫ 如何ᄒᆞᆫ 我利的 私慾이 有ᄒᆞᆯ지라도 絶對的 勞働者의게 過度의 壓迫은 與키 能ᄒᆞᆷ 뿐안이라 假使 自己의 主張 私慾을 行使코저 ᄒᆞᆯ지라도 그 勞働者되ᄂᆞᆫ 사ᄅᆞᆷ이 반ᄃᆞ시 그 無理를 主張을 服膺치 안이ᄒᆞᆷ으로 恒常 友愛的 心理로 態度를 維持코저 ᄒᆞ며 或 利害上 紛爭이 起ᄒᆞᆯ 時ᄂᆞᆫ 資本主側에셔 先讓步的 偉大의 襟度와 그 大多數의 勞働階級을 包容ᄒᆞᄂᆞᆫ 餘地가 有ᄒᆞ니라 그러치 안이ᄒᆞ고야 엇지 그 多數ᄒᆞᆫ 勞働者로 ᄒᆞ야곰 大事業을 經營ᄒᆞᄂᆞᆫ 發展의 前途를 坦平케 ᄒᆞ리요 是故로 勞働者도 그 資本主에 對ᄒᆞ야 그와 갓치 誠意誠心으로 努力을 不忘코저 ᄒᆞᄂᆞᆫ 實際的 報復이 有ᄒᆞ도다 大抵 如斯히 公平正直ᄒᆞᆫ 親切ᄒᆞᆫ 勞資間에도 種々 여러가지 衝突이 生ᄒᆞ야 雙方의 意見이 到底히 折衝키 不能ᄒᆞᆯ 時ᄂᆞᆫ 必히 同盟罷業도 되며 工場閉鎖도 되ᄂᆞᆫ지라 此를 見ᄒᆞ면 西洋의 勞働者ᄂᆞᆫ 恒常 自己等의 無産階級의 不平的 感情으로 外資本主의 誠意를 無視ᄒᆞ고 勞銀이나 時間制나 過度의 要求를 提唱ᄒᆞ기도 ᄒᆞ고 資本主도 亦不得已ᄒᆞᆫ 境遇에 在ᄒᆞ야 그 紛爭을 抵止치 못ᄒᆞᆷ으로 事業을 停止ᄒᆞ며 工場을 閉鎖ᄒᆞᄂᆞᆫ 事도 不無ᄒᆞ다 此에 由ᄒᆞ야 見ᄒᆞ면 歐米의 勞働者ᄂᆞᆫ 相當ᄒᆞᆫ 生存權도 有ᄒᆞᆫ뎌라 能力도 有ᄒᆞ고 組織的 資本이라 ᄒᆞᄂᆞᆫ 그 黃金力만 資本主의게 讓頭ᄒᆞ겟고 其他 智能上 競爭에도 秋毫의 弱點이 無ᄒᆞ기로 資本主도 決코 自己의 黃金萬能으로 外人格과 能率을 敢히 無視치 못ᄒᆞᆯ것이라 如上의 關係로 一定ᄒᆞᆫ 權利라 義務라 ᄒᆞᄂᆞᆫ 질序를 整理ᄒᆞᆫ 勞資間에도 何等의 不平과 不滿의 點이 有ᄒᆞ야 現今 所謂 勞働問題가 一變ᄒᆞ며 世界問題가 此에 集中ᄒᆞ야 全世界의 人類思想을 緩和코저 ᄒᆞ며 今後에 列國의 注意가 一齊히 經濟戰線에 集注되ᄂᆞᆫ 理由도 亦是 此問題의 中心點으로써 ᄒᆞᆷ이라 ᄒᆞ야도 可ᄒᆞ도다

그러ᄒᆞᆫ뎌 우리 朝鮮에 在ᄒᆞ야 所謂 勞働者라 ᄒᆞᄂᆞᆫ 農村子弟의 知識階級을 見ᄒᆞ라 何等의 人格이 有ᄒᆞ며 何等의 覺悟가 有ᄒᆞᆫ가 但只 原始的 時代에서 그되로 生長ᄒᆞᆫ 사ᄅᆞᆷ에 不過ᄒᆞᆫ지라 是故로 生存上에 如何ᄒᆞᆫ 權利가 有ᄒᆞᆫ지 如何ᄒᆞᆫ 方法이 有ᄒᆞᆫ지 渙然不知ᄒᆞᆷ은 안이라 現代의 世界的 勞働問題도 亦是 何物을 指稱ᄒᆞᄂᆞᆫ지도 理解치 못ᄒᆞᄂᆞᆫ 程度에 在ᄒᆞᆷ은 우리 朝鮮의 農夫가 안인가 此를 見ᄒᆞ면 그 地主되ᄂᆞᆫ 사ᄅᆞᆷ은 比較的 有識階級이라 ᄒᆞᆯ수 잇지마ᄂᆞᆫ 所謂 有識階級이라 ᄒᆞᄂᆞᆫ 地主도 亦是 歐米의 勞働者의 知識程度에도 不及ᄒᆞᆷ은 지도 知ᄒᆞ거니와 又ᄂᆞᆫ 近代 東洋人의 自我主義에 疲廢ᄒᆞᆫ 所以로 古代로부터 遺傳ᄒᆞᆫ 謙讓的 良風美俗이 지漸々 消滅되ᄂᆞᆫ 同時에 所謂 道德이라ᄂᆞᆫ 影影은 一片의 空虛界에 消沒ᄒᆞ고ᄂᆞᆫ디 比ᄒᆞ면 三尺童子라도 朝日의 背景에ᄂᆞᆫ 百尺의 虛長影을 現出케ᄒᆞ고 萬里長城을 雄壯ᄒᆞᆫ 原形도 黑夜에 消沈된것과 갓치 朝鮮人의 道德心은 有形無形의 間에셔 何等 正體가 無ᄒᆞᆷ으로부터 一切 拜金主義의 强烈ᄒᆞᆫ 刺激을 受ᄒᆞ야 現時 所謂 有資階級이라 云ᄒᆞᄂᆞᆫ 地主ᄂᆞᆫ 眼中에ᄂᆞᆫ 富뿐이라 ᄒᆞᄂᆞᆫ 以外에ᄂᆞᆫ 何物도 無ᄒᆞ고 但只 如何ᄒᆞᆷ 事이던지 總히 金錢萬能으로써 解決코저 ᄒᆞᄂᆞᆫ 結果로 이 社會에ᄂᆞᆫ 大學者도 되고 大宗敎家도 되고 高尙ᄒᆞᆫ 人格도 되다 萬一 富가 안이면 何等의 價値가 업다 ᄒᆞᄂᆞᆫ 現時 富豪의 心理狀態에 엇지 彼와 갓흔 不幸ᄒᆞᆫ 人々의 農村情況에 同情ᄒᆞᆯ 餘地가 有ᄒᆞ리요 또ᄂᆞᆫ 人情은 모르고 그 不幸ᄒᆞᆫ 人々의 覺悟치 못ᄒᆞᄂᆞᆫ 機會를 利用ᄒᆞ야 苛斂誅求의 惡手腕으로써 그 所謂 小作料를 徵收ᄒᆞᄂᆞᆫ바 元來 地主와 小作人間에 何等의 規約이 無ᄒᆞ고 地主의 處分方法에 依ᄒᆞ야 分配를 決定ᄒᆞᆷ으로 그 利益이 勿論 地主側에 歸ᄒᆞᆯ것은 必然의 理勢가 안인가 그러므로 或 苛酷ᄒᆞᆫ 地主의 下에셔ᄂᆞᆫ 終年을 勞苦ᄒᆞᆫ 그 人力은 不捨ᄒᆞ고 收穫의 全部로써 地主의 要求에 不足의 歎이 有ᄒᆞ되 此要求에 應치 안이ᄒᆞ면 반ᄃᆞ시 小作權을 取消ᄒᆞ던지 又ᄂᆞᆫ 訴訟行爲에 依ᄒᆞ야 强制處分이라도 敢行ᄒᆞᄂᆞᆫ 이 社會에 우리 朝鮮人으로 自作自給의 人이 果然 幾人이나 될가 然則 滿天下의 地主된 其人은 반ᄃᆞ시 現代의 世界를 驚動ᄒᆞᄂᆞᆫ 勞働者의 不滿不平의 絶叫ᄒᆞᆷ을 見ᄒᆞ라 今日 우리 半島를 一大農場으로 보고 二千萬의 勞作을 完全케 ᄒᆞ자 ᄒᆞ면 世界的 步調도 外 同一의 主義를 唱導치 안이치 못ᄒᆞᆯ것이라 〃

米國政治主義의 變遷 (五)

故로 歐洲大戰亂은 政黨의 政治的 色彩를 一掃除去ᄒᆞ고 偉大ᄒᆞᆫ 勢力을 成ᄒᆞᆫ者이다 此新時代에 同時에 米國의 國家主義生活에 深遠ᄒᆞᆫ 意味를 成ᄒᆞ얏다 換言ᄒᆞ면 米國本來의 奮闘的 精神을 發揮ᄒᆞᆯ만ᄒᆞᆫ 擧國一致로 新時代를 迎ᄒᆞᆯ것이라 即 共和黨의 黨是라고 稱ᄒᆞᆯ만ᄒᆞᆫ 政治思想은 如上의 精神에 立ᄒᆞᆫ 國家主義를 第一義로 ᄒᆞᄂᆞᆫ 進取的 帝國主義요 對外的에ᄂᆞᆫ 始終一貫ᄒᆞ야 强硬ᄒᆞᆫ 外交를 實行ᄒᆞᆯ것이라 換言ᄒᆞ면 參戰後의 民主黨은 總히 共和黨의 政策을 踏襲實行ᄒᆞ야 來ᄒᆞᆷ으로 此政治的 推移 國家國民運動의 變遷은 恰似히 米國思想界에 對ᄒᆞᆫ 獨逸의 理想主義가 凋落ᄒᆞ야 英佛의 進取的 物質主義 功利主義를 轉換ᄒᆞᆫ것과 彷彿ᄒᆞ얏다

更히 「의ᄅᆞᆫ손」 大統領의 蕭條ᄒᆞᆫ 晩年과 如ᄒᆞᆫ者ᄂᆞᆫ 所謂 米國主義를 表徵ᄒᆞᆫ 物敎育이라 此政治生活에셔 沒落과 共히 民主黨이 八年間의 天下를 共和黨에 讓ᄒᆞᆫ것도 亦是 明瞭ᄒᆞᆫ 亞米利加主義의 進化로 見ᄒᆞ면 意味가 多ᄒᆞᆫ것이다

然則 今後의 米國政治ᄂᆞᆫ 如何ᄒᆞᆫ 色彩와 步調로 外 進展ᄒᆞᆯ터인가 此ᄂᆞᆫ 世界各國이 多大ᄒᆞᆫ 興味로써 觀望ᄒᆞᄂᆞᆫ바이라 許者 或은 戰後의 米國政治로써 平和主義에서 軍國主義에 乃至 人道主義에서 帝國主義에 轉變ᄒᆞᆫ다 論ᄒᆞᄂᆞᆫ者가 有ᄒᆞ나 如斯ᄒᆞᆫ것은 米國의 歷史를 一貫ᄒᆞᆫ 一義의 活動이오 眞國民精神의 皮相論이라 右에 論ᄒᆞᆫ바와 如히 米國의 政治가 如斯히 進展을 現ᄒᆞᆫ것은 全혀 自然의 運命으로 此를 要컨뒤 〃 進化的 延長에 不過ᄒᆞᆷ이라

一陽來復ᄒᆞᆫ 共和黨의 政治ᄂᆞᆫ 而黨 上院議員 進步派領袖의 政治的 反映이라 現大統領 「하-듸ㅇ」氏 立候補 當時의 攻爭을 見ᄒᆞᆫ者ᄂᆞᆫ 直히 其邊의 消息이 分明ᄒᆞᆯ것이다 此ᄂᆞᆫ 內로ᄂᆞᆫ 進取的 國家主義의 充實이오 外로ᄂᆞᆫ 經濟的 帝國主義의 發展이라 然而 更히 內에ᄂᆞᆫ 國防充實論이 되고 外에ᄂᆞᆫ 對外硬論을 取ᄒᆞᆫ 一義로 ᄒᆞ나 國際聯盟을 極力 反對ᄒᆞ얏ᄉᆞᆫ 「但라」氏의 提唱과 如ᄒᆞᆫ 此가 今後에 如何ᄒᆞᆫ 形式을 取ᄒᆞᆫ다 ᄒᆞᆯ지라도 要컨뒤 英地에셔 猝然히 開ᄒᆞᆫ 不時의 花가 實을 不結ᄒᆞ고 進化論 風前에 散ᄒᆞ엿다 超絶哲學의 終焉을 豫想ᄒᆞ얏다ᄒᆞ야도 大差ᄂᆞᆫ 無ᄒᆞᆯ줄 思ᄒᆞᆫ다

本年 三月四日 大統領就任辭에 發表된 「하-듸ㅇ」氏의 政策論에 「米國은 財政과 通商活動을 擴大ᄒᆞ여야 되겟나 然而 米國은 如何ᄒᆞᆫ 民族에 對ᄒᆞ여셔던지 米國에 宣戰을 布ᄒᆞᆷ과 如ᄒᆞᆫ 原因及 國家的 偏見을 與ᄒᆞᆫ다 然이나 若 吾人이 不得已ᄒᆞ야 戰치 아니치 못ᄒᆞᆯ 境遇에ᄂᆞᆫ 吾人은 個人으로 또 國民으로써 不精力을 此에 集中ᄒᆞ야 精神的으로 將又 物質的으로 全米國의 國防을 達成케 ᄒᆞ지 아니ᄒᆞᆯ수 업다」ᄒᆞᆷ을 見ᄒᆞ면 此가 如何히 國際的 協調 乃至 所謂 新國家主義를 高唱ᄒᆞᆫ것인가 玆에 所謂 米國政治의 經濟的 帝國主義 乃至 進取的 國家主義 精神의 蔚然ᄒᆞᆫ者가 有ᄒᆞᆷ을 窺ᄒᆞᆯ수 잇나니 然而 其 國際主義에 至ᄒᆞ야ᄂᆞᆫ 二種의 大別이 有ᄒᆞ니 平和人道主義의 理想鄕을 像想ᄒᆞᄂᆞᆫ者와 侵取的 英雄主義를 取ᄒᆞᄂᆞᆫ者가 是ㅣ라 前述ᄒᆞᆷ과 如히 米國에셔ᄂᆞᆫ 前者가 沒落ᄒᆞ고 後者가 擡頭ᄒᆞᆷ 故로 彼 所謂 國際主義에ᄂᆞᆫ 世界에 覇者가 되라ᄂᆞᆫ 野心이 도々히 發然ᄒᆞᄂᆞᆫ 事를 不知ᄒᆞ야서ᄂᆞᆫ 不可ᄒᆞ다

米國의 內治外交及 經濟政策이 亞米利加主義를 一貫ᄒᆞᆫ 事ᄂᆞᆫ 前에 旣히 此를 論ᄒᆞ엿나 然이나 彼의 對外策인 「몬로-」主義政策의 進化論에 立ᄒᆞᆫ 國際主義ᄂᆞᆫ 堂々ᄒᆞᆫ 表現에 見ᄒᆞᆷ과 如ᄒᆞᆫ 平和人道主義ᄂᆞᆫ 無ᄒᆞ고 背景에 絶對의 勢力을 有ᄒᆞᆫ 經濟主義를 經緯로 ᄒᆞᆫ 帝國主義이니 吾人은 此를 世界的 米化主義의 政治라 ᄒᆞᆯ것이니 如斯히 觀察ᄒᆞᆷ에셔 始ᄒᆞ야 米國의 歷史及 思想을 諒解ᄒᆞᆯ수가 잇고 更히 그 反映되ᄂᆞᆫ 現今의 米國을 窺ᄒᆞᆯ수가 잇다 그뿐 아니라 此一義에 對ᄒᆞᆫ것으로 米國將來의 國家主義 國際主義 其 內治外交策을 洞察ᄒᆞᆯ수가 잇다 如斯히 共政治ᄂᆞᆫ 奮闘的 精神을 核心으로 ᄒᆞ야 縱伸ᄒᆞ며 橫展ᄒᆞᄂᆞᆫ것이다 若 事事、外交、通商의 局面에 當ᄒᆞᆫ 閣員ㅣ 國務卿 「휴-스」 商務卿 후버ㅣ 海軍卿 데ㅣ-비ㅣ 諸氏의 人物을 觀ᄒᆞᄂᆞᆫ 時에ᄂᆞᆫ 其邊의 消息을 分明히 知ᄒᆞᆯ수 잇ᄂᆞᆫ것이다 此를 要컨뒤 將來의 米國은 國家的 資本主義를 擁ᄒᆞ야 經濟的 帝國主義를 重心으로 ᄒᆞᄂᆞᆫ 世界的 米化主義의 政治實現으로써 急進의 一路로 向ᄒᆞᄂᆞᆫ 事를 知ᄒᆞ리로다 (完)

那翁逝後 一百年 (二)

佛國第三共和國의 大統領은 人民投票에 依ᄒᆞ야 選出ᄒᆞ지 안이ᄒᆞᆫ것은 「씨사」主義에 依ᄒᆞᄂᆞᆫ 一人政治의 出現을 畏ᄒᆞᆫ 所以다 又 「구레만소」가 大統領이 되지 못ᄒᆞᆫ것도 彼가 一次 被選된 後에ᄂᆞᆫ 一人政治를 敢行ᄒᆞ고 共和政治의 運用을 妨害ᄒᆞᆯ가 疑懼ᄒᆞᆷ에 因ᄒᆞᆫ것이다 此로부터 那翁은 其帝國 建及 歐洲大陸征服에 當ᄒᆞ야 古代羅馬의 「씨사」及 「오구스타스」皇帝와 中世紀의 「사루루마뉴」皇帝를 倣ᄒᆞᆫ 事가 多ᄒᆞ나 同時에 本來 自身이 革命의 子인 性分을 忘치 아니ᄒᆞ야 佛國革命의 特長되ᄂᆞᆫ 論理的及 統一的 精神을 發揮ᄒᆞ야 茲에 十九世紀劈頭의 氛圍氣가 有ᄒᆞ얏다 佛國現代史學大家 「에르네스트、라뷔스」敎授ᄂᆞᆫ 「彼ᄂᆞᆫ 考古學的 外套로써 革命을 掩ᄒᆞᆫ者라」評ᄒᆞ얏다

又 那翁은 歐洲群小의 君主公侯를 一網打盡으로 其王位를 奪ᄒᆞ야 或은 此等을 慴伏케ᄒᆞ고 此를 頤使ᄒᆞ야 全歐洲를 席捲ᄒᆞᆷ에 諸國의 人民ᄂᆞᆫ 自覺自悟ᄒᆞ고 民權的 精神을 忽然勃發ᄒᆞ얏다 그런안이라 那翁 自己의 野心을 滿足케 ᄒᆞ기 爲ᄒᆞ야 歐洲를 壓迫ᄒᆞᆫ 間에도 此로 因ᄒᆞ야 西班牙人民及 獨逸人民의 精神을 覺醒케ᄒᆞᆫ것은 「라뷔스」敎授가 言ᄒᆞᆷ과 如히 革命의 臭가 有ᄒᆞ다 最後에 羅馬法皇을 [illegible]히 待遇ᄒᆞᆫ것도 彼의 革命色을 緩ᄒᆞᆫ것이다 勿論 彼ᄂᆞᆫ 理想을 抱持치 안이ᄒᆞ얏다

다 被ᄂᆞᆫ 運命에 因ᄒᆞ야 一般的 事物을 手段으로 使用ᄒᆞ얏다 然이나 那翁의 一人政治의 他面에ᄂᆞᆫ 革命精神이 有ᄒᆞᆫ 事를 輕視치 못ᄒᆞᆫ다 이로부터 那翁의 覇業을 論코자 ᄒᆞᆫ다

那翁의 大戰役은 一般이 知ᄒᆞᄂᆞᆫ바와 如히 伊太利에서 始ᄒᆞ야 一七九七年의 「카스치오비느」「알고리」 리부오리의 會戰으로부터 同年 十月十七日 「칸보푸울미오」의 講和及 次에ᄂᆞᆫ 埃及遠征으로 「피라미드」의 戰爭을 贏得ᄒᆞ고 一八〇〇年에ᄂᆞᆫ 「알푸스」를 越ᄒᆞ야 「마렌고」의 大捷을 奏ᄒᆞ얏다 一八〇二年 五月二十五日에ᄂᆞᆫ 英國과 「아미안」講和를 締ᄒᆞ얏다 那翁이 一八〇四年에 皇帝位에 即ᄒᆞ자 有名ᄒᆞᆫ 「라구반알메」(大軍隊)를 組織ᄒᆞ얏다 이로부터 十年間은 「아우에르스테ᄃᆞ」「이에나」「아우스테릿쓰」「와그라우」「푸리도란드」「에스링구」「와람」 莫斯科의 大軍은 此曉名을 天下에 揚ᄒᆞ얏다 「맛세나」「베이」「노위」「도두오」「미유라」「베르치에」及 「란누」元帥等은 其勇名을 那翁과 共히 史上에 遺存ᄒᆞ얏다 此十年間의

那翁의 政治及 戰鬪의 目的은 歐洲를 統一ᄒᆞ야 紀元八百年의 「사루루마이뉴」의 西歐帝國을 再現ᄒᆞᆷ에 在ᄒᆞ얏다 此에 關聯ᄒᆞ야 那翁은 十年間이나 海의 覇王 英國과 陸의 覇王 露國을 主ᄒᆞᆫ 敵으로 ᄒᆞ얏다 同時에 「엘쇠」家 以來의 傳說的인 墺國皇帝와 戰爭ᄒᆞ야 徹底ᄒᆞ게 勝利ᄒᆞ얏다

文化國民의 將來 (二)

于先 歷史ㅣ 諸般 文化國民의 滅亡ᄒᆞᆫ 原因에 就ᄒᆞ야 考究ᄒᆞ야 볼진뒤 「헤게르」오 「게르마니」ᄂᆞᆫ 民族의 勃興에 至ᄒᆞ기ᄭᆞ지에 文化國民의 盛衰에 就ᄒᆞ야 彼의 哲學上으로써 甚히 深妙ᄒᆞᆫ 解釋을 下ᄒᆞ얏다 그러나 此에ᄂᆞᆫ 哲學上의 思辨的 考察은 全避ᄒᆞ고 다만 科學的 考察을 加ᄒᆞ야 止ᄒᆞ얏도ᄃᆡ 要컨ᄃᆡ 歷史上 諸般 文化國民의 滅亡ᄒᆞᆫ 根本原因은 彼等의 頹廢라고 認ᄒᆞᆷ에 止ᄒᆞ얏다 畢竟 一國民의 文化가 大히 發達ᄒᆞ야 一定의 程度를 越ᄒᆞ고 보면 其國民은 身體的이나 또ᄒᆞᆫ 精神的이나 自然 頹廢ᄒᆞ야 野蠻의 國民 又ᄂᆞᆫ 文化發達의 低ᄒᆞᆫ 階段에 在ᄒᆞᆫ 國民의 攻擊에 對ᄒᆞᆫ 抵抗力이 弱ᄒᆞ야 遂히 彼等에게 滅亡되ᄂᆞᆫ것이라고 看做ᄒᆞᆷ이다 그러고 文化의 發達은 自然 國民生活力의 減退를 誘致ᄒᆞᄂᆞᆫ者 或은 國民生活力의 減退가 文化의 發達을 促ᄒᆞᆷ으로 見ᄒᆞᄂᆞᆫ 生物學的 文學論을 唱ᄒᆞᄂᆞᆫ 學者도 잇다 그러나 그것도 오지ᄀᆞ 不確實ᄒᆞᆫ 一假說에 不過ᄒᆞ다고 思ᄒᆞᄂᆞᆫ데 如何間 歷史上의 事實은 文化國民의 發達이 一定의 程度를 越ᄒᆞ면 國民은 自然 頹廢ᄒᆞᄂᆞᆫ것임을 證示ᄒᆞ얏고 其頹廢의 深遠ᄒᆞᆫ 原因은 如何ᄒᆞᆫ것인가ᄂᆞᆫ 오직 不明ᄒᆞ다 ᄒᆞᆯ지라도 頹廢ᄒᆞᆫ 物의 滅亡의 直接原因인것은 無疑ᄒᆞ다고 思ᄒᆞᆫ다 於是乎 現代文化國民이 文化國民 一般의 歷史的 運命을 脫ᄒᆞ고 더욱 文化를 發達식히면서 더욱 健全ᄒᆞ게 되여가기 爲ᄒᆞ야ᄂᆞᆫ 몬저 文化에 發達이 어ᄂᆞ 程度를 超越ᄒᆞ야 進ᄒᆞᄂᆞᆫ 境遇에ᄂᆞᆫ 스ᄉᆞ로 現出ᄒᆞ야 來ᄒᆞᄂᆞᆫ 頹廢의 傾向을 避ᄒᆞᄂᆞᆫ 方法을 講究치 안이면 안되겟다 또 그것만으로ᄂᆞᆫ 充分치 못ᄒᆞ고 更히 身體的及 精神的에 더욱 優良히 ᄒᆞᄂᆞᆫ 方法을 講究치 안이면 안되리라 그러ᄒᆞ면 文化가 發達이 어ᄂᆞᆫ 程度를 超越ᄒᆞ야 進ᄒᆞᄂᆞᆫ 境遇에 自然 此에 伴ᄒᆞᆫ 頹廢의 傾向을 避ᄒᆞᄂᆞᆫ 事ᄂᆞᆫ 果然 可能ᄒᆞᆯ것인가 此에 適ᄒᆞᆫ 方法은 果然 發見ᄒᆞᆷ을 得ᄒᆞᆯ것인가 更히 現代文化國民의 質質을 더욱 優良케 ᄒᆞᄂᆞᆫ 方法은 果然 存在ᄒᆞᄂᆞᆫ가 然이나 此等의 問題를 論ᄒᆞ기 前에 또 注意치 아니면 안될 一問題가 잇다 그것은 現代國民은 旣히 頹廢의 徵候를 現ᄒᆞ얏ᄂᆞᆫ지 否인지 ᄒᆞᄂᆞᆫ 問題이다 假令 現代文化國民도 其文化가 더욱 發達ᄒᆞᆷ에 伴ᄒᆞ야 早晩에 頹廢ᄒᆞᆯ것이라 ᄒᆞ야도 今日에 오직 其徵候가 少毫도 現出되지 안이ᄒᆞ얏스면 上述의 問題ᄂᆞᆫ 本來 重要ᄒᆞᆫ것이라 ᄒᆞᆯ지라도 今日에ᄂᆞᆫ 그다지 切迫ᄒᆞᆫ 問題라고ᄂᆞᆫ ᄒᆞᆯ수 업다 그러코 吾人은 少ᄒᆞ야도 現在에ᄂᆞᆫ 此問題를 看過ᄒᆞ야 두고 專혀 文化의 發達에 力을 注ᄒᆞ야도 조흔것이나 然而 反是ᄒᆞ야 今日에 旣히 頹廢의 徵候가 歷々히 現出ᄒᆞ얏스면 或은 少ᄒᆞ야도 其徵候를 可히 覺得ᄒᆞᆯ만ᄒᆞ면 吾人은 文化運動에 熱中ᄒᆞ던지 文化主義를 絶叫ᄒᆞ던지 ᄒᆞᄂᆞᆫ 同時에 否다 그것보다도 一層 重要ᄒᆞᆫ 問題로 ᄒᆞ야 頹廢를 防ᄒᆞᄂᆞᆫ 方法을 講究치 안일수 업다 又 更進ᄒᆞ야 國民의 質質을 健全優良케 ᄒᆞᄂᆞᆫ 方法을 講究치 안일수 업ᄂᆞᆫ 現代文化國民은 旣히 頹廢의 徵候를 示ᄒᆞ얏ᄂᆞᆫ가

藝術과 民衆 (四)

最後 實際論에 就ᄒᆞ야 敎書를 述코자ᄒᆞᆫ다、歐米에셔 民衆藝術運動의 主旨ᄂᆞᆫ 前述과 如히 「昔에ᄂᆞᆫ 貴族會에ᄂᆞᆫ 資本家階級에 獨占되든 藝術을 民衆에게 開放ᄒᆞ다」ᄒᆞᆷ에 在ᄒᆞ다 第四階級의 羨望的은 但히 衣食住에 限치 안이ᄒᆞ고 智識慾의 滿足과 享樂에 在ᄒᆞ고 又 在ᄒᆞ기도 可ᄒᆞᆫ者이나 此等運動의 大體方針은 (一)展覽會、博物館、美術館等의 開放 (二)音樂會及 演劇의 無料 乃至 廉價觀覽 (三)國庫補助에 依ᄒᆞᆫ 廉價의 國民文庫發刊 (四)自由閱覽所외 普及 (五)藝術의 關ᄒᆞᆫ 講演 又ᄂᆞᆫ 講習會라 此等順序에 依ᄒᆞ야 廣義的 民衆敎育의 實을 擧ᄒᆞᆷ에 在ᄒᆞ도다 佛國革命時代에 此種運命의 萌芽를 見ᄒᆞ얏스나 組織的으로 實現된것은 二三十年前 事이다 然이나 維也納의 巴里에 先鞭을 着ᄒᆞ고 佛蘭西가 獨逸의 例를 倣ᄒᆞ야 特히 新民衆劇을 設立ᄒᆞ얏다 瑞西 白耳義等도 此方面에 努力ᄒᆞ고 專制國의 露西亞에셔도 二十年前에 火酒稅의 收入을 補助財源으로 ᄒᆞ야 國民劇建設의 大計劃을 立ᄒᆞ야 其一部分은 旣히 實現되얏다 東洋에ᄂᆞᆫ 오즉 宮廷劇場이나 國民劇場이 無ᄒᆞᆫ것을 遺憾으로 思ᄒᆞᆫ다

思컨되 如斯ᄒᆞᆫ 事ᄂᆞᆫ 一般社會運動 文化運動과 提携ᄒᆞ야 根氣가 有ᄒᆞ게 繼續行치 안이ᄒᆞ면 其效果를 見치 못ᄒᆞᆯ것이나 然而 其方法은 大劇場式과 小劇場式과 並行ᄒᆞᆷ 必要가 有ᄒᆞ다 佛蘭西의 「民祭」式에 一次에 數千의 民衆이 集ᄒᆞ야 壯大ᄒᆞᆫ 演戱를 ᄒᆞᄂᆞᆫ것과 如ᄒᆞᆫ者도 有效ᄒᆞ다 或 意味에셔ᄂᆞᆫ 希臘의 藝術의 復興을 뭐ᄒᆞᆷ도 可ᄒᆞ나ㅣ 此ᄲᅮᆫ으로ᄂᆞᆫ 微妙ᄒᆞᆫ 藝術의 雰圍氣中으로 民衆을 誘導ᄒᆞ기ᄂᆞᆫ 困難ᄒᆞ다 各地에 劇場 乃至 集會場을 設ᄒᆞ야 比較的 小數의 民衆에 趣味와 美育을 授ᄒᆞᆯ 機會를 作치 안이ᄒᆞ면 不可ᄒᆞ다 然而 講談演說等의 間接的 方法보다 直觀的 民劇、演奏 乃至 映寫等이 特히 有效ᄒᆞᆫ 事ᄂᆞᆫ 一般으로 認ᄒᆞᄂᆞᆫ 事實이나 理想으로ᄂᆞᆫ 如何ᄒᆞᆫ 境遇에던지 「로만」의 所謂 「保護覺人」으로써 民衆에게 臨ᄒᆞ야서ᄂᆞᆫ 안될것이다 ᄂᆞᆫ 最히 其恐怖를 負ᄒᆞᆫ 所以다 又 吾人의 目標ᄂᆞᆫ 「靑年少ᄒᆞᆫ 民衆」에 在ᄒᆞ다 「現代보다 良好ᄒᆞᆫ 時代」를 作코저 ᄒᆞᄂᆞᆫ 意志ᄂᆞᆫ 民衆運動에 特히 忘ᄒᆞ기 不可ᄒᆞᆫ 事條件이다 吾人의 見ᄒᆞᆫ바로ᄂᆞᆫ 「로만」을 唱始ᄒᆞ야 此種論者 乃至 實行者가 過多ᄒᆞ야 現在의 民衆을 眠中에 置ᄒᆞ기를 其히 ᄒᆞᆫ다 此處로부터 妥協이 生ᄒᆞ고 讓步가 起ᄒᆞ고 迎合이 生ᄒᆞᆫ다 如何ᄒᆞᆫ 境遇에던지 民衆에게 孤媚ᄒᆞ야셔ᄂᆞᆫ 아니될것이다 增長케 ᄒᆞ야서ᄂᆞᆫ 안이된다 民衆은 睡眠ᄒᆞᄂᆞᆫ 猛獸다 過度히 親押ᄒᆞ면 咬傷을 當ᄒᆞᆯ것이다 藝術問題에셔도 此가 必要잇ᄒᆞ다 宮廷劇場과 國民劇場과 如ᄒᆞᆫ者가 存在치 안이ᄒᆞ면 不可ᄒᆞ다 宮廷劇場에도 勞働者가 坐ᄒᆞ고 國民劇場에도 貴族富豪가 席을 占ᄒᆞᄂᆞᆫ 機會가 有치 안이ᄒᆞ면 不可ᄒᆞ다 華麗兩劇場은 一이 되지 아니ᄒᆞ면 不可ᄒᆞ다 此ᄂᆞᆫ 總階級을 打破코자 ᄒᆞᆷ이 아니라 各階級(職務上에셔)이 各々 健全히 發達ᄒᆞ야 大ᄒᆞᆫ 元氣와 理解와 歡樂이 充滿ᄒᆞᆫ 社會를 形成치 아니ᄒᆞ면 不可ᄒᆞ다 ᄒᆞᆷ이다 階級互相의 嫉視關爭、兩性間의 無理解 中產階級의 萎靡、等이 吾人에 社會生活로부터 歡樂을 奪去ᄒᆞᆫ다 音樂을 滅殺ᄒᆞ고 舞蹈를 衰亡케ᄒᆞᆫ다 吾人은 沙漠과 如ᄒᆞᆫ 日常生活을 堪忍키 難ᄒᆞ다 何處를 勿論ᄒᆞ고 「調和」를 求ᄒᆞᄂᆞᆫ 聲이 高ᄒᆞ게 되엿다 社會의 總稱 特히 年少者間에 起ᄒᆞᆫ다 「와구네르」의 綜合藝術과 如ᄒᆞᆫ者에 對ᄒᆞᆫ 憧憬과 其期待가 此等 柔軟ᄒᆞᆫ 胸中에 徘徊ᄒᆞᆫ다 吾人은 此를 培養치 아니ᄒᆞ면 不可ᄒᆞ다 貴重ᄒᆞᆫ 萌芽를 枯死케ᄒᆞ야셔ᄂᆞᆫ 不可ᄒᆞ다 深遠ᄒᆞᆫ 愛에 泉으로 灌注치 안일수 업다 眞正ᄒᆞᆫ 云ᄒᆞ자면 所謂 民衆이 或은 群衆의 粗野의 本能的 嫌忌를 感ᄒᆞᄂᆞᆫ 事가 多ᄒᆞ다 爲이나 烟眼敏腕과 堅固ᄒᆞᆫ 皮膚를 有ᄒᆞᆫ 年少人만 想像ᄒᆞᆯ 時ᄂᆞᆫ 互相握手、前進ᄒᆞᆯ 欲望을 禁치 못ᄒᆞᆫ다 此等人은 結局 民衆으로부터(同胞)를 代ᄒᆞ기 可ᄒᆞᆫ 人이 안이면 不能ᄒᆞ다 勿論 總藝術家ᄂᆞᆫ 所謂 民衆藝術家다 民衆運動에ᄂᆞᆫ 參加ᄒᆞᆯ 必要가 無ᄒᆞ다 此ᄂᆞᆫ 總勞働者가 藝術修養을 要치 안이ᄒᆞᄂᆞᆫ것과 同樣이다 各其 天才와 素質을 持ᄒᆞ얏다 此에 從ᄒᆞ야 進行ᄒᆞ면 好ᄒᆞᆯ것이다 但히 肝要ᄒᆞᆫ바ᄂᆞᆫ 愛ᄒᆞᄂᆞᆫ 心과 愛를 受ᄒᆞᆫ 人ᄂᆞᆫ 正直ᄒᆞᆫ 心과 表現의 熱情과 向上의 努力이라 畢竟 藝術化의 民衆化와 民衆의 藝術化ᄂᆞᆫ 一이오 二가 안이니 此를 深思치 안이ᄒᆞ면 不可ᄒᆞ다 (完)

曉霧

玄憑虛 作

十一

벌서 두어달前의 일이다 어느날 花羅와 晶愛가 永淑의 집에 놀너 갓슬ᄯᅢ에 永淑은 房에 엇던 靑年이 하나 이엿ᄂᆞᆫ것을 보앗다 그靑年은 얼골회 몸피가ᄂᆞᆫ 美男子이엿ᄂᆞᆫ되 花羅와 晶愛을 보고 몸을 避ᄒᆞ얏셧니 그여 花羅가 永淑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앗다

「우리 四寸옵바야ㅣ 東京留學ᄒᆞ다가 上海ᄭᆞ지 단여오셧서ㅣ 只今 여긔서 英語工夫를 ᄒᆞ고잇다」

「英語工夫를 ᄒᆞ다니 무슨 우리 모양으로 讀本이나 비호ᄂᆞᆫ줄 아니 으슈 어려운 文學冊을 읽으신단다 或 몰으는것이 잇스면 西洋사람한테 물으러 나가신다 그리고 또 漢文도 잘ᄒᆞ시겟지 젊은이로 新舊學文이 가진이는 춤 드물어」

이러케 흥흥ᄒᆞᆫ 四寸옵바가 비게 잇ᄂᆞᆫ듯이 자랑과 깃븜으로 永淑은 입에 춤이 업시 四寸오리비의 稱讚을 ᄒᆞᆫ다

두處女ᄂᆞᆫ 맑은 눈에 精神을 모아 그 이야기를 듯고만 잇다

永淑의 말이 ᄭᅳᆺ나자 花羅가 우스며

「응… 그러킬리 져번學期에 비 英語、成績이 조트라」

「이애 져번學期에는 우리 올바가 오시지도 안엇다」

「ᄯᅩ도 英語를 오니비와도 비가 才操가 잇셔셔 成績이 조와단 말이지ㅣ 나도 더갓치 才操나 좀 잇셔 보앗스면 죠켓ᄉᆞ다」

라고 花羅ᄂᆞᆫ 말을 비ᄭᅩᆫ다

「웨 춤 너는 결피ᄉᆞᄒᆞ면 남을 외집어 말ᄒᆞ더군」ᄒᆞ고 永淑의 얼골이 시뢰록ᄒᆞ여진다

「우슴에 소리를 셩닐거야 잇니 그말은 고만두고 나도 네옵바ᄒᆞ데 英語나 좀 빈호게 ᄒᆞ다고」ᄒᆞ고ᄂᆞᆫ 花羅ᄂᆞᆫ 선우슴을 치며 ᄯᅩ 晶이를 向ᄒᆞ야 「우리갓치 비와 응 그리가지고 永淑이를 ᄒᆞᆫ번 이겨보자」

「왜 晶愛의 成績이 나보담 못ᄒᆞᆫ길리ㅣ」

「더나ᄒᆞ면 더조치……」ᄒᆞ고 花羅ᄂᆞᆫ 무엇이 우수운지 손벽을 치며 웃ᄂᆞᆫ다

그後 들이 永淑의 집에 놀너를 가면 그靑年과 서로 마조치ᄂᆞᆫ 일이 여러번 잇섯다 그리고 그靑年은 두處女만 보면 늘 避ᄒᆞ엿다 ᄒᆞ로ᄂᆞᆫ 花羅가 우스며 永淑이더러

「비옴바가 우리보고 內外ᄒᆞ거야 무엇 잇니……이리 좀 들어오시라고 그리 좀 親히 가지고 英語나 빈화보게」

「청말 그럴가」 永淑은 깃분듯이 몰엇다

「그건 그런라」ᄂᆞᆫ고 晶愛ᄂᆞᆫ 얼골을 붉힌다

「이이 新時代 女子란 男女公際도 잘히야 된다 學校에 단이ᄂᆞᆫ 계집애가 붓그럼을 그러케 타셔 무엇、쓴단 말이냐」라고 花羅ᄂᆞᆫ 憤ᄒᆞᆫ듯이 晶愛를 反駁ᄒᆞ엿다

永淑은 제동모들 자랑ᄒᆞ고도 십고 제옵바를 자랑ᄒᆞ고도 ᄒᆞ여

「그러면 오시랄가 오시랄가!」

ᄯᅩ 催促을 ᄒᆞᆫ다

「그리 오시라고히요」 花羅ᄂᆞᆫ

「옵바ㅣ」ᄂᆞ라고 永淑은 마츰내 소리를 니여 부른다 두處女를 보며 웃ᄂᆞᆫ다 晶愛ᄂᆞᆫ 그리 은속인다 花羅ᄂᆞᆫ 가장 엄젼ᄒᆞ게 ᄒᆞ고 시침을 ᄯᅦ니다

「옹 왜 그러ㅣ」

「이리 좀 오세요」

그말에ᄂᆞᆫ 오모 對答이 업고 門 여ᄂᆞᆫ 소리가 지그둥ᄒᆞ고 난다 그에 다달은치고 새處女의 잇ᄂᆞᆫ 房門

「나중 보셔」ᄒᆞ고 무시ᄂᆞᆫ 그소리ᄂᆞᆫ 좀 ᄃᆞ엘니ᄂᆞᆫ 맛이 잇셧다

두處女ᄂᆞᆫ 合소리를 죽엿다 永淑은 엽드門을 열고 나가셔 무러고 ᄒᆞ며 못ᄂᆞᆫ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永淑이가 우스며 門을 열고

「자아 들어가셔요」ᄒᆞᆫ다

두處女ᄂᆞᆫ 一齊히 몸을 날으켜 花羅ᄂᆞᆫ 미부러우 우움음 ᄯᅴ고 晶愛의 얼골은 唐紅빗갓치 되고 말엇다

晶愛ᄂᆞᆫ 조금 上氣ᄒᆞᆫ 얼골로 우스며 들어온다

「ㅣ인ᄂᆞᆫ 今晶愛…어이ᄂᆞ 冊花羅에예요 모다 져동모야요」

永淑은 나오ᄂᆞᆫ 우슴을 참으며 먼저 져동모를 紹介ᄒᆞᆫ다

「이ᄉᆞᄂᆞᆫ 우리 四寸옵바……」

艱辛히 예외지 말을 ᄒᆞ고ᄂᆞᆫ 고만 웃고 말어진다

이後브터ᄂᆞᆫ 각금 花羅ㅣ 거줍니며 晶愛ᄂᆞᆫ 永淑의 집을 ᄭᅳᆫ니들 갓셧다 가면 흔히 晶煥을 만나고 만나면 그냥 지르 반갑게 人事만 ᄒᆞ엿도 잇고 갓치 모혀 놀기도 ᄒᆞ엿던 漸々 얼골이 익어 김사룩 두處女ᄂᆞᆫ 晶煥에게 몰으ᄂᆞᆫ것을 뭇기도 ᄒᆞ고 晶煥이ᄂᆞᆫ 두處女게 西洋小說梗槪를 이야기ᄒᆞ기도 ᄒᆞ엿다

廣告

純고무經濟靴及洋靴ᄂᆞᆫ
大陸고무에 限ᄒᆞᆷ

種類		小賣代價	
純고무經濟靴	小兒用	壹、四〇	
	小	壹、八〇	
	中	貳、〇〇	
	大	貳、五〇	
純고무洋靴	文數	紐無	紐付
	六、七文	壹、四〇	
	八文以上	貳、〇〇	貳、貳〇
	九文以上	貳、參〇	貳、五〇
	十文以上	貳、七〇	貳、九〇

男女用鮮靴、半靴、洋靴其他各種一足以上十足以上은特別割引ᄒᆞ오며取扱店、特約店을募集ᄒᆞ오니希望者ᄂᆞᆫ本所에問議ᄒᆞ심
京城府鍾路通一丁目四十七番地
大陸고무工業所總販賣部
電話長七六五番 振替京城七三三番

瑞西國 타반時計會社
大 印
타반
世界에冠이라

營業品目
寫眞機及材料
自轉車及附屬品
機械의正確
意匠嶄新
貴金屬、裝身具
銀器、銅器、美術品
每月第一日曜及二十日休業ᄒᆞ옵ᄂᆞ다
京城本町
代理店 株式會社 大澤商會京城支店
時計部電話長二六二 寫眞部電話三三九 自轉車部電話四八〇 振替京城二三一

言文 上下篇全一冊二百餘頁 定價五十錢 郵稅四錢
本書ᄂᆞᆫ太原池錫永先生의著作ᄒᆞ신바우리民族이行用ᄒᆞᄂᆞᆫ言語中에未解ᄒᆞᄂᆞᆫ者ᄂᆞᆫ與人交酬와說明講演과文字著述에障碍가多ᄒᆞᆫ故로此에感念ᄒᆞ야一般의[illegible]詳解ᄒᆞᆫ것을漢文으로對照ᄒᆞ고高低ᄂᆞᆫ合符ᄒᆞ야[illegible]人士와婦女兒童이라도解釋키容易ᄒᆞ도록一卷冊을編纂發行ᄒᆞᆷ 但一卷注文에ᄂᆞᆫ先金이안이면發送치안니ᄒᆞᆷ
新舊書籍業 寬勳洞一四二番地
廣學書舖
主 鄭 善讀

본뎜이마업두년에제우의의고ᄒᆞᆫ심을다몽ᄒᆞ온바수에신구물화를확장ᄒᆞ압고주문ᄒᆞ시ᄂᆞᆫ뒤로신실슈응ᄒᆞ오니전쥬문ᄒᆞ시옵소서又舊書천자유합동몽션훈게몽편명심보감사략통감등도출판ᄒᆞ압내다
京城蓮池町一丁目九十四番地
五房在家 朴元植
振替六四七〇番

內科小兒科 外科花柳病
佐藤病院
仁川 (電話四〇九番) (入院隨意)
ドクトル メヂチーネ 院長 佐藤小五郞

鮮昌商會

잉키消
各色의부잉키와버터린、衣服이감나品 (定價二十錢)

防水糊
삼가비단布等에[illegible] (定價十六錢)

秘密잉키
紙類等에이잉키로쓰면보지못ᄒᆞ다가불에쪼이면낫하나오 (定價三十錢)

今般本商會에셔左記三種을發明販賣ᄒᆞ오니愛護ᄒᆞ심을務望ᄒᆞᆷ 支店特約店을募集ᄒᆞ오니但書札通信으로ᄒᆞ고面談코자ᄒᆞ면午前十二時ᄭᆞ지桂洞一四番地로來議ᄒᆞ시옵 品請求ᄂᆞᆫ鍾路通二丁目普仁堂藥房으로ᄒᆞ시고代金은郵稅五十錢을先送ᄒᆞ심
製造都散賣所 京城桂洞一四番地
委託販賣所 鍾路二丁目普仁堂藥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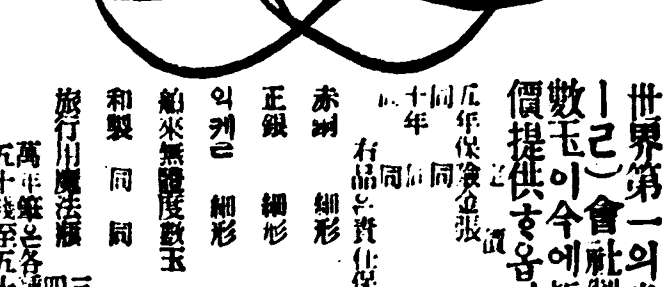
市內特約店

所在	商號
京鍾路二丁目	東一大藥房
同鍾路四丁目	海東藥房
同樂園洞[illegible]	長[illegible]堂藥房
同竹添町二丁目	濟[illegible]藥房
同需昌洞五	德[illegible]商店
同鍾路一丁目一八	元盛商店
同齋洞一〇一	安豐商店
同鍾路四丁目[illegible]	泰源商店
同鍾路一丁目[illegible]	德[illegible]商店
同貫鐵洞[illegible]	朴鎬玩商店
同松洞一二九	豐盛商店
同西大門町一丁目[illegible]	共[illegible]商店
同鍾路三丁目六七	正彩色商店
同竹添町二丁目	書[illegible]商店
同竹添町一丁目	興鉉商店
同授恩洞[illegible]	崔聖賢商店
同鍾路三丁目四二	李[illegible]商店
同寬勳洞	實信書鋪
同樂園洞	廣學書鋪
同樂園洞七五	和洋雜貨商
同昌信洞三五六	李古商店
京城桂洞一四番地	韓[illegible]商店

鮮昌商會製造所

開業廣告
本人이昨年以來로市內觀水洞에最新式各種料理業金剛園을經營ᄒᆞ옵다가其間事勢에依ᄒᆞ와他人의게賣渡ᄒᆞ얏든바今般前日弊園을愛顧ᄒᆞ시든惠澤을報答ᄒᆞ기爲ᄒᆞ와前記金剛園跡을更爲買受ᄒᆞ와國一館이라改稱ᄒᆞ옵고一新修理ᄒᆞ와各種料理를無漏完備ᄒᆞ얏사오니內外國僉位ᄂᆞᆫ倍前光臨ᄒᆞ심을千萬伏望ᄒᆞᆷ
市內觀水洞 前金剛園跡
內外國各種料理業
國一館
主務 沈振澤 白
電話二一九三〇番

半島齒科醫院
京城府西大門町[illegible] 電話[illegible]番



眼鏡 魔法瓶 萬年筆
商標 星
星眼堂
朴泳和 李明信
京城鍾路二丁目一五番地 振替京城七八六一
世界第一의米國(오막지카ㅣ己)會社製金張眼鏡과度數玉이今에新着ᄒᆞ야여삽기廉價提供ᄒᆞ옵니다
價表
五年保險金張 細形 四圓 細形 四圓九十錢
同 同 細形 五圓 細形 五圓五十錢
十年同 同 細形 五圓五十錢
有品은責任保險證이有홈
赤銅 細形 細形 自二圓八十錢 至三圓五十錢
正銀 細形 細形 自三圓五十錢 至四圓五十錢
익케ᄅ 細形 細形 自一圓五十錢 至三圓五十錢
舶來無體度數玉 自四圓五十錢 至一圓八十五錢
和製 同 同 三合入 二圓
旅行用魔法瓶 四合入 二圓八十錢
萬年筆은各種이有ᄒᆞ고價金은自一圓五十錢至五十五圓ᄭᆞ지修繕도精密히홈니다

歐米情報

米對聯合協調條件
「얍프」島問題의主張認容

米國은聯合國의協調에復歸할條件으로「얍프」島問題에關한同國의主張認容을條件으로하리라더라(紐育電)

米對獨通牒槪意

米國은獨逸에對하야聯合國의要求에應함을希望하는旨의通牒을發하엿다더라(倫敦電)

英炭坑夫持久戰
點燈은制限되고列車도休運된다 形勢는坑夫側에有利하다

目下英國의炭坑罷業問題로因하야日復日增加하는失業者는其數가四百萬에達하얏더라 實業家도商業界가全혀崩壞하라는狀態이有함으로써警戒와驚愕이莫大하고石炭缺乏의結果ㅣ數百의工場은不得已休業閉鎖함에至하얏고一般需燈은七割五分으로制限되야人口五千以下되는小都市에서는全然히燈火를見치못하게되고釀造會社에對하야는石炭의供給을許치아니하며「코레도、세ㄴ드라ㄹ」鐵道는日曜의列車運轉을休止하얏더라 炭礦爭議를解決하기爲하야各方面의努力이甚多하지마는今日(五月四日)까지는到底히解決의所望이無하고鐵道從業員組合理事「로미스」氏는樂觀的態度를取하는데旣히米國으로向하야出發한同氏의意見을據한즉危機는本週中(七日까지)에去하겟다하며坑夫組合實行委員「위데」氏는坑夫의大集會에서演說하기를「坑夫로써今後二週間戰鬪를繼續함에는勝利를可得하리라」云하얏고坑夫幼兒扶養義捐金은旣히二萬五千磅을算함에至하얏고勞動黨首領「헨다손」氏는聯合勞動委員會의名義로三萬二千磅을坑夫聯合會에送附하야如此히坑夫側에對한一般的同情은坑夫側의持久戰에有利한形勢가되는中이더라(倫敦電)

「싱펀」黨과勞農握手說

裁府와브릿크、레人자오紙는「싱페ㄴ」黨과勞農政府間에條約草案이存在하엿다고可驚할만한事實을發表하엿는데右는千九百年을有한期限으로할것이오愛蘭에在한英國政府當局은此에關한文書를押收하엿는데此에는露西亞의所謂愛蘭共和國의承認及露西亞로브터軍器彈藥의供給과通商機關을承認하는目的으로商議하고잇는데、바레다氏及其他의人士도關係하엿다하며右草案中에는「宗派의相互援助에承認을與한一章도包含하엿는데此에關하야「킹스」州選出의「싱펜」黨議員인「맛카우존」博士는『玆에吾人은羅馬法王과親善關係를結하엿고羅馬法王은從來처럼英國에게左右되지안으리라』고云々하얏더라(倫敦電)

印度反英的騷動

去五日에「시칼부르」에서五千의反英派印度人은親英派의集會中을掩襲하야瓦石棍棒을投하고耳가聾할만치高喊하며攻擊하야드듸여同集會場인찬데이、빌디ㅇ그를破壞하얏는데此騷動으로六名의重傷者가出하엿다더라(마드라스電)

獨後繼內閣組織

獨逸後繼內閣은「뷰우로오」公에依하야組織되리라는說이甚高하더라(伯林電)

瑞典死刑廢止案
上下兩院을通過하다

瑞典上下兩院은死刑廢止案을可決하엿다더라(海牙電)

支那政局

徐總統과內閣問題

徐總統은九日에張作霖、曹錕、王占元及其他의四巡閱使를主賓으로하고午餐會를開催하엿는데內閣의問題가解決을見하기까지는오히려數日을要하리라더라(北京電)

東宮과英皇室

皇太子殿下께서는九日로바킹감宮殿에入하엿섯는데同夜英皇室의晩餐은盡善盡美한것이엿스며英帝陛下의乾盃辭에對하야殿下께서는流暢한語法으로謝答辭를述하엿다더라(東京電)

西伯利撤兵斷行乎

對支策將轉換乎

日本政府는西比利亞方面의撤兵을斷行함과共히滿鮮國境方面에軍力을集하야其防備를嚴重히할意嚮이라하다더라(東京電)

日本政府는且對支政策을改하야穩健的態度를取하기로決定하고實行方法에就하야四國借款團과協議를開始하엿다더라(東京電)

十日閣議의內容

十日의閣議는近間開催될殖民地長官會議의準備協議를行하엿는데其席上에田中陸相、內田外相으로부터對下의軍事外交에關하야長時間의說明이잇섯다더라(東京電)

淳宮殿下御婚約

第二皇子淳宮殿下께서는來年에御成年에達하심으로一條直子姬와御婚儀의內約이御決定되엿다더라(東京電)

特別所得稅新設乎

財政經濟調査會는地租及營業稅를地方稅로移하자는前提ㅣ에特別所得稅를新設하라고目下調査中이라더라(東京電)

阿部東京府知事辭表提出說

東京府知事阿部浩氏는瓦斯問題에關聯하야辭表를提出하엿다는說이잇더라(東京電)

米國參加와今後局面如何

米國이最高會議、大使會議及賠償委員會에非公式代表者를參加케하기로決定한데는別項에報와如하거니와聯合國으로서는獨逸에對한賠償問題를爲始하야國際聯盟理事會及法律委員會에서拒絕된「얍프」島問題의如한重要問題를決定함에就하야

米國의參加 를必要한다

함은當然한事이나佛國과如함은專혀此를主張한바ㅣ고米國도今回各國의正式勸告에應하야參加하기로決定한것이다 事實上賠償問題와如함은目下獨逸이그支拂方法으로債券을發行한다하더라도此引受에對하야는먼저米國의力에期待할바가甚多하는事情이잇슴으로各方面에亘하야米國의意向을參酌할必要가有하다 元來米國도當然히參加하여야될터이지마는「베르사이유」條約을批准치아니함으로因하야參加치못하얏다가今回와갓치獨逸의調停者로受될것이다

賠償問題

와如함은今日까지正式의意見을發表치아니하얏스나米國이參加한다는事가有하다하면全歐洲의經濟에關하야重大한地位를가진米國의參加한다는事는兩方面에相當한意見의一致가有하야聯合國의最後決定을見하기에至할것이고米國의調停的意見에依하야獨逸이米國의參加한後의決定을見하게되면次回의最高會議에서는賠償問題와併하야

「얍프」島問題 도討議

하게되겟도다 同問題에就하야는過日法律委員이大使會議의要求를拒絕한所以는各國의態度가오즉決定치못함은아니라佛伊와如함은又히米國의主張을肯定함과如한傾向이有하니若米國을參加한最高會議에서다시論議하게되면結局은事實上米國의主張에從하야委任統治의再議를行하게되야日本에는非常한不利를致할것은可爭치못할事이다 國際聯盟理事會及法律委員會가同問題에對한審議를拒絕함은理論上의理由에依하야巧妙하게責任을回避한것이오事實上米國에對하야國際聯盟이나最高會議나是認치아니하면硬한米國의主張으로決定的態度를取할수업는것이다 今後英佛伊等各國의態度는從來米國의主張과및各國의米國에對한關係에徵하더라도極히重要視하게될것이다

煙草都賣人設置에就하야
專賣局長談

煙草元賣捌人의設置並指定의如何는從來의煙草販賣業者에게甚大한影響이有할뿐아니라製品의配給에關係됨이頗大함은言을不俟할바이라 因하야當局에서는此決定에當하야愼重히調査硏究하고從來의取引關係等을지도顧慮하야元賣捌人의設置指定에關하야大體左의方針에依하게하얏노라

一、元賣捌人의販賣區域 元賣捌人의販賣區域은別로制限을設치안코從來의取引關係와其他의狀況에依하야自由로販賣함을得하게하얏스나運賃又는輸送의便否等으로因하야自然히區域을劃함에至할터임으로此際는外放代金의整理等의事情의許하는限度에元賣捌人의數를減하야一元賣捌人의取引區域을擴大할지라 其結果ㅣ一元賣捌人으로써製品의配給上不便을致할것으로因하야更히主要地에營業所의設置를許可하기로하고元賣捌人及營業所의設置個所를別表와如히決定함

二、元賣捌人의指定 申請을하는者가豫定數에超過한境遇에는可成的關係地方마다元賣捌人의團體를組織케하기로하고少하더라도左記資格을有한者가組合加入希望이有할時는此를拒絕함을不得케하얏노라 元來元賣捌人을從來의都賣者로限定함은屢々說明함과如히可成的此等의營業者로하야금多大한損失이無케하라는趣旨에不外하는것이나一面으로는販賣上의關係도有하야全部는其希望을採納하기不能한境遇를生함은理數 免不得할바라 故로如此한境遇에는此等의各人은交讓妥協의精神으로써圓滿하게團體를組織함을希望하는次第로라 故로若一部의個人으로써私利에拘惑하야協調를不肯함과如한境遇가有할時는不得已하야或은此를除外하고指定하던지或은從來煙草販賣에關係가全無한人을指定할는지도알수업스니此點은充分히諒解함을希望하노라 又地方에依하야는다만外放代金의完償으로써全然히其地方에만元賣捌人의團體를組織케함을希望하는者도有하다하지마는一面으로는從來의取引關係도잇슴으로여에서左記條件에該當한者는此等의各人도其地方府로서는同一히團體員으로協定하야

左記

(甲)大正九年六月以前부터煙草의卸賣를行하기를業으로하는者

(乙)大正九年中의取引高가五千圓以上이되는者 但京畿道及江原道는三千圓以上 黃海道及江原道은四千圓以上으로함

(丙)煙草製造者及外國煙草의一手販賣를하는者에就하야는前

三、煙草製造者에元賣捌人의指定은大正九年中의取引高五千圓以上의것도할者로하고 ...

元賣捌人設置並營業場許可豫定地表(一)

販賣官署	元賣捌人設置場所	元賣捌人員	元賣捌人營業場所	許可場所數	關係府郡島名	府郡數
京城支局直轄	京城	一	(市內京城府)	二	京城	一
			(市外永登浦)、楊平、漣川郡全谷、加平、抱川郡松隅里	五	高陽、始興、金浦、富川、抱川、楊州、楊平、加平	九
	水原	一	水原郡烏山、利川、安城、利川郡長湖院、平澤、驪州	六	水原、安城、振威、龍仁、利川、驪州	六
	開城	一	汶山、長湍郡高浪浦	二	開城、長湍、坡州	三
	春川	一	洪川、楊口	二	春川、華川、楊口、洪川、麟蹄	五
	原州	一	橫城、寧越、平昌、文幕	四	原州、橫城、寧越、平昌、旌善	五
	鐵原	一	平康、金化、伊川、金化郡、伊川郡、昌道、文石場、淮陽	六	鐵原、平康、伊川、金化、淮陽	五
計		六		二七		三四

煙草專賣와準備

總督府煙草專賣局에서는去四月三十日로써各煙草製造所에對하야徵收目錄을交附하얏는데該目錄에揭한것은何品됨을不問하고製造所에서自由로處分함을不得한다는데이다 其附屬品도一切徵收이되는것이고工場에使用되는器具機械類의記錄에列擧한諸品은來七月一日부터工場에使用케되겟고特히當局에서는各製造所의事情도有하겟다하야一日이라도速히評價함을要함으로目下本專賣局技師와共同하야其評價에從事中인바此評價를告畢하고受授가完了되게되기는七月末或은八月初가될터이라는데右徵收目錄을交附한製造所는東亞煙草會社、朝鮮煙草會社、東亞商會의三個所이라하며尙且專賣局에서는工場規程、煙草徵收規程等幾多의法令制定에對하야이번審議中이며只今各方面에서크게運動中인都賣의方針도旣히總督의決裁가有하야十一日로其方針을發表하얏고煙草運送方法도目下調查中인바當局에서도一般社會의疑惑을招치아니하도록가장信用이잇는者를選定하고競爭入札을行하게되리라더라

本年春蠶有望
京畿道山內農務課長談

春蠶의前途를悲觀하야日日로其掃立을終了하엿는데本年의春蠶掃立은其日本의早場地方에서昨今에겨우收蟻하고特히時期를迎함에至하야新繭物이一貫匁十二圓五十錢의記錄을示함에至하엿는데此로써直히時價라고速斷함은早計일지나掃立當時의沈鬱에比하야前途에一縷光明을認得한것으로可喜할現象이니如斯히本春의蠶界를見할것이니반다시相當한收穫을可期할터이라더라

取引所와監督官

總督府는取引所稅의實施에伴하야取引所의監督을直接又는間接으로取締함을必要하다는現在의恒常二名의專門家를置하기로하고먼저仁川取引所에는吏員을派遣하야第一名을置하기로하고近間에東京으로轉任者가잇슬것이라더라

穀物市場許可期

全鮮穀物集散主要地에서當局에對하야取引市場의許可申請이多數提出된것은旣報와如하거니와其後의經過에依하면出願總數二十七個所中에許可되게된것은旣히決定되고目下其發表期는今明間總督의東渡하기以前에發表되리라고云하더라

日本軍費豫算과旅團朝鮮移轉問題(上)

明十一年度 의陸軍豫算

大正十年度陸軍豫算은二億六千三百一十餘萬圓이니九年度에比하면三千九百八十八萬餘圓의增加된바目下의物價騰貴率에는二億二千三百三十八萬餘圓外幾何한節約을하여도一億五千萬圓以下로는豫算을할수업스며一方으로陸軍側當局의軍事費는大正九年度에在하야一億五千四百七十萬餘圓이엿스나西伯利派遣軍의經費만도七千九百三十六萬餘圓에在하야十年度에依하야縮減되는以上은再히七億圓을突破하리니結局日本豫算은五割以上을國防費에被奪하고各省의生産的文化施設은萬不得已하게될것이다然而前記의國防費는陸海軍의縮小를斷行하고軍制改革을不行하면大削減할수업다

海軍豫算 은八八艦隊完成費年割當額、既製艦艇의維持費及物價騰貴로因하야增加될各方面의經費를合算할時는到底히一億을突破할것은容易한일이다然而明十一年度에는當然히一億의追加要求가잇는데陸軍側當局은明十一年度에至하야約二千萬圓의追加要求를必要로한다하야海軍側과陸軍側이各派遣軍을現狀그대로하더라도軍事費가約八千萬圓의增加될것이니年十一年度는臨時軍事費를本年度와大差가無할것으로하야約二千萬圓의追加要求를必要로한다고陸軍側의當局의明言하는바로必要할것이다然而陸軍側과海軍側이各增加要求를主張하면軍事豫算은一億六千萬圓을突破하리니

經費節減 及朝鮮內地에對한陸軍側의移動에關한것이라

西伯利派遣軍의經費五千八百二十四萬餘圓、薩哈連派遣軍의經費一千五百十六萬餘圓에島守備軍及其他軍事費五千九百二十七萬餘圓을合하면約二百九十九萬餘圓이다

教育界新現象
智覺府學務主任談

近時京城의初等教育界에서가장興味잇는動機는各種의教育調査硏究에關한事業、學校의自覺的計畫이라는現象이니即普通學校側에서校長會議에서自發的으로計畫한것이다

一、調査會 가不久成立

하더라도바本會는各校職員으로써組織되고其內에教育部、社會部、調査部의三門을置하고學校教育의改善과社會教化事業과의關係等에對하야硏究함을目的으로하고更히今年度부터는普通學校에

二、圖書教科書 의設

備에注意하야先生을本部에配置하야自然히朝鮮人의圖書를普及케되는同時에其教授에相當한努力을致하여一般普通學校職員의素質을優良케하여야되는것이니近日에는其講習會를設置하고每週一回一個月로써第一期의講師를選擇하고目下講習中이라더라

三、理科教授 의硏究會

를設하야日本內地에出張케하기로하야비오마에教育部、長의招聘으로第一回의講習會를開하고

四、講習會 를開하고

年一回式各校職員에對한講習會를開催하고既히朝鮮人의教育者에게硏究調査에依하야此等의事業에成效가잇는것이라더라

京城共進會 未定

近年京城에서朝鮮物産共進會가開催되리라는說은就이야田中府尹이何時에開催될지는未定이나多數의府協議員中에서는此를有益하다하야昨年度에開催하기로하얏는데昨年에는朝鮮神社와南大門驛의落成期를擇하야施政五年共進會를開하던時보다도四五百萬圓을要할것이니何時에開할지未定이며此財政困難한時機에는此를開하기難하다고云々

鑛山界復活乎

財界의恐慌으로地方의鑛山은大部分이休止하고今日은約一千五百個所의鑛區中에서現在事業이잇는것은不過二百四十個所인데其大部分이休業中이라其他는各種鑛山의價格低落으로因하야一時休業하얏던바昨今에이르러서는各方面에서鑛山의再開를計劃하는者가多하니此는鑛物價格이漸次回復의傾向이잇는것이라고하더라

北滿各國人 戶數

東支沿線主要各地에在住하는各國人의戶數人口는如左하다더라

種別	戶數	人口
日本人	一、一五一	四、[illegible]九
朝鮮人	一、四〇八	四、一二〇
支那人	[illegible]	[illegible]
露人	[illegible]	[illegible]
英人	一九	[illegible]
米人	三	八六
佛人	八	二四
獨人	二	五〇
伊人	五	二九
墺人	五	三二
其他	四	二六
合計	[illegible]	[illegible]

表示하면如左함
地名	日本人	朝鮮人
哈爾賓	三、四八六	七二一
新韓村	……	三六
小綏芬	三	四七
니코리스크	七一	一八
東支東清沿線以外	……	二五一
海拉爾	三六	……
滿洲里	五一	……
武市	三	一〇九
烏市以東哈府以西	……	三四〇

軍經理官會議

朝鮮軍經理部는全鮮各部隊經理官會議를十一日부터三日間開催하야豫定事項을協議한後各新工事에關한것이라더라

殖銀支店長會終了

朝鮮殖産銀行에서는全鮮各地支店長會議를本店에서開會하고去二日以來의豫定日程을進行하얏는데各支店長은十日에閉會하엿다더라

民聲

△已往부터이어니와△今回煙草元賣捌人數와場所를指定하는바이오△京城支局은所管은合計九十八人이오大邱支局은合計十一人이오平壤支局은合計十人이며全州支局은合計十一人이오大邱支局은合計二十人이라一般이生각하기를△朝鮮人이多數되리라하얏더니數人에不過하고此五十八人中에△朝鮮人은數人에不過하다 △民聲子의耳聞이나다시朝鮮人都賣業者는絕無한상이고斷貫코져하며△朝鮮人은오모도無誠한悲境에陷하야自滅을期待하는것갓다 △朝鮮의現狀으로말하면煙草部賣業者갓흔것은全部勿論朝鮮人에게指定하는것이原則이지만은△아모리推測하야도그것은希望이업는듯하니式이라도此權利를取得하얏스면하는消極的期待에止함은朝鮮人의絕對的指針인가한다

商況

(十日現在)

鮮銀券 發行高	一〇一、三三七、七八七	
正貨準備	五三、六七一、三五八	
發行餘力	……	

●日銀概況(九日現在)	
發行高	一、〇一九、九四四
正貨準備	一、〇一九、九四四
發行餘力	一二〇、〇〇〇
貸出高	七八、三二一

日本金利及市況(十日現在)

金利	東京	大阪
一ㅣ年	八、〇	六、〇
無條件	七、〇〇	五、〇〇
六十日物	一五、〇〇	二三、〇〇
當座步合	一四、〇	一三、〇

仁川期米
十日後場(無變動)

前場은二十二圓六十九錢初付되後에도九錢以下六十錢臺에서差異가無하고多少賣氣가旺盛하야후場에는人氣稍平靜

▲第一節 當中限不成에先限은八十九錢이公定이니前止보다三錢高한다

▲第二節 當中限不成에先限은八十錢에寄하야七錢에止하다

▲第三節 當中限不成에先限은八十五錢寄하야八十錢으로다시後에八十五錢에止하다

▲第四節 當中限不成에中限은九十五錢에一口가잇고先限은八十五錢에寄하야五錢에止하다

▲第五節 當中限不成에先限은八十錢에寄하야八十錢에止하다

▲第六節 當限不成에中限은九十四錢에一口가잇고先限은八十錢에寄하야八錢에止하다

初付	二十二圓七十八錢
止價	二十二圓八十二錢
高價	二十二圓八十九錢
安價	二十二圓七十八錢

公定價格

一節	二十二圓七十八錢
二節	二十二圓八十四錢
三節	二十二圓八十二錢
四節	二十二圓八十五錢
五節	二十二圓八十四錢
六節	二十二圓八十三錢

十一日前場(保勢)

十日取組高 三六〇〇石 七月限 一八〇〇石 賣買總石數

▲第一節 當限不成에中限은二十一圓八十九錢이公定이오先限은七十錢에寄하야大阪初付에따라人氣一變하야賣氣가旺盛하야

仁川大豆
十日後場(下落)

前場은十四圓六十錢에始하야五十錢에겨우二丁에下勢立場을作하고後各地現豆材料는未差이나人氣는漸次軟弱하야立會하니

▲第一節 十四圓五十錢에寄하야四十錢을低價로四十一錢에止하니前寄에比하면二十丁이下落되엿더라

▲第二節 寄에賣로十四圓三十錢에寄하야三十四五錢에서保勢하다가七錢에高價로大止하다

初付	十四圓五十錢
止價	十四圓三十七錢
高價	十四圓五十錢
安價	十四圓三十錢

公定價格

一節	十四圓四十一錢
二節	十四圓三十五錢

仁川在穀數量

仁川穀物協會調査에依한仁川內在六銀行倉庫의穀數量은如한바前週調査보다玄米에七一九九石이增加되엿더라

	仁川
玄米四斗入	一七一五一
五斗入	二九一八二

京株市場賣買價(十一日)

十一日前場(軟弱)

昨日後場은大阪時勢無變動과當地人氣無活氣로因하야二十二圓七十錢으로六十錢々지겨우五錢差를生하고散會한後 今朝天氣는大阪氣配는昨日無變動하더니當地人氣는더욱下勢를報하니

公定價格

一節	二十二圓六十九錢
二節	二十二圓六十七錢
三節	二十二圓六十五錢
四節	二十二圓六十八錢
五節	二十二圓六十八錢
高價	二十二圓七十錢
止價	二十二圓六十九錢
初付	二十二圓六十九錢

十日取組高

五月限	一四二〇〇石
六月限	二五一〇〇石
七月限	三九二〇〇石
賣買總石數	一八九〇〇石

本日時勢는右와如함 京城黃金町二丁目一九九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電話一一三六番 合 趙鎭崑仲買店

米豆取引所 仁川 那須仲買 電話長一三一番 長七六三番

仁 期 米 福 實確 懇切 小林藤右衛門

辭令(五月十日附)

稅務監督府事務官(丸龜市)大久保謙

總督府事務官矢鍋永三郎 任總督府專賣局事務官(四等)

大邱專賣支局長을命함

同 原正鼎 任總督府參事官(三等)

總督府事務官水口隆三 任總督府監察官(三等)

總督府警察官講習所長古橋卓四郎 兼任總督府監察官(四等)

東拓一割配當

東洋拓殖株式會社는來二十三日午後二時부터東京商業會議所에서第十三期定時株主總會를開하고第十三期利益金分配案及其他議附議할後任期滿了된監事一名을選擧할터인되當年度利益金額은三百七十萬六千餘圓에達함으로써配當은年一分增의一割로施行하게되리라더라

美國二十世紀新進活動家에愛用하신洋靴는此社會에서賞讚을밧는青年洋靴올시다 無情歲月이如流하야本店도開業以來於焉間數個 地方主文은 京城鍾路中央青年會館內

◉淸凉里線陰中을通過ㅎ는電車

鮮新聞紙法改正에對ㅎ야 當局者의反省을促홈

조선 현행ㅎ는 신문지법은 하도불완전ㅎ야 일반언론계로ㅎ여금 다대ㅎ 불편과 고통을 밧게ㅎ는 노々히 말치안이ㅎ야도 세상이 다ㅎ는바어니와 검폿ㅎ면 시세와 민도를 빙자ㅎ는 당국도 너무 이러케ㅎ야셔는 안될줄을 넉달앗든지 지나간 경우총감부시디부터 이것을ㄱ청ㅎ다가 지작년 총독부의 관제가 변경된후 다시 경무국에셔 계속ㅎ야 겨우 초안을 만들어노코 그후 다시 근본뎍으로 성안ㅎ야 심사한결과 참사관실에 회부ㅎ얏다도다 이것이 구톄뎍으로 공포되자면 아즉도 오린ㄴ 일자를 경날보양이며 그리고 한면으로는 이 신문지법긔청에 착수ㅎ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청명호 총독부당국에셔는 작년이래 무시도히 조선천부를 동ㅎ야 신문지법에 의지ㅎ 신문과 통신과 다잡지ㅅ々지 합 야 오십여종의 발힝권을 허가혼것이 너무 과남ㅎ다ㅎ야 이후부터는 시로히 츌원ㅎ는것에 ᄃᆡᄒᆞ야 조선디방에ㅎ 어디ㄱ々할것업시 절ㄴ루 허ㅎㅇ지안키로 결뎡ㅎ얏다한다 오一당국자 케공이여 조선인의 시세ㅎ 엇던뎌를 조선인의 시세라ㅎ며 조선인 뎡도ㅎ 엇던것을 표준ㅎ야 조선인의 뎡도라ㅎ며 종ㅎ당임ㅎ 신문지법에 의지ㅎ야 발힝권을 허가ㅎ얏다ㅎ 신문이든지 통신이든지 잡지이든지 무엇을 가라쳐하는 말이며 남발의 허가를 칭탁ㅎ고 이후부터 츌원을 거절한다는 말도 그 무삼말인가 요컨디 다른민족의게 죠를 부르짓든지 희방ㅎ 요구ㅎ든지 무엇을 ㅎ라고ㅎ구 ㅎ는것을 구경할것도 업시 산출一골집은 곳에 홀로ㅎ야 부도옹들ㄴ되고 말어아 이것이 조선인의 시세라ㅎ겟스며 한문의 상식의 엿고긴홈ㅅ 사회의 경헙의 만코 적음은 도모지 교제치오코자 모의 셧ㅁ그지 밋헤셔 저룩무리도 황구쇼으로 인뎡ㅎ는 것이 이것이 조선인의 뎡모를 표준홈이며 신문지법에 의ㅎ야 허가ㅎ 잡지ㄷ 조선인에ㅎ야ㄷ 본보와 동아일보와 시사신문등 세신문과 련도교 월보와 뎐도교청년회 긔벽 삼지와 종의의 약신보등 오류종에 지나지못ㅎ고 그남어지 십중팔구는 거의다 일본인의 경영ㅎ는것은 인ᄃ 조선인을 위ㅎ야 무엇으로 그러케 파디홀것이 잇스며 남의죽음은 나의 감ㄱ만도 못ㅎ다ᄂ 체음으로 감ㅁ배야 부르든지 말든지 뼈야 어렵ㅁ되든지 부는 관계홀것이 업시 나변만ㄷ의 표식ㅎ야스면 그만이라는 체음으로 언론의 자유도 엇는만 되로ㅎ고 언론긔관을 회ㄱ장홈 일본인은 의만원되야 당국에 클여러방면 후원을 밧는 쇼수의셔 하가ㅎ기전에 몬져 출원할 필요가 업게된줄을 짐작 고ㅎ는말인가 이상 여러가지를 미루어볼진디 참으로 옴다가도 몰을것은

당국자의 언론계에 ᄃᆡᄒᆞᆫ 태도라 반문치 안이치 못ㅎ겟다 이리지안이ㅎ야 그 체력을 일어바릴것은 명화ㄱ한일이라 ㅎ노니 당국자케공이여 일시동인의 조측과 민의창달을 부르짓는 이셔파면 조선인을 경인ㅎ고 파연 조선의 언론계의 조유를 존중코자ㅎ는가 오ㅣ 체공이여 반성홀ㅣ

宣統皇帝結婚

황비는 몽장원종지의 짜님 결혼후에는 히외에 유학

칠일발 북경통신에 의ㅎ면 선통황뎨(宣統皇帝)는 결혼년뎡이 십세이겸 덩ㅎ 볼구ㅎ고 연넌 십팔세로써 황비(皇妃)를 맛기로ㅎ야 황비는 몽상원 총서포(貢桑諾爾布)의 딸과 뎡혼ㅎ얏ㄷ디 선통황뎨는 결혼후에 희외에 어유학ㅎ기로 준비즁이다더라

도리와

관공서를

파괴홀작뎡으로 권ㄱ다섯명과 갓치 작년칠ㅁ시오일에 상히를 출발ㅎ야 평북 초산으로브터 은밀히 조선니디에 들어와셔 팔월일에 도부ㄷ 평양에 들어와 즉시 수식에 분수히 모라단이ᄂ

궁동경부 보(?)와 즉이고 그달삼일에 그의 일파는 은밀히 평양에 들어와 도청사에 폭탄을 던지고 각디를 힝ㅎ다가 함경남도에 잠복한것을 데포ㅎ야 엄즁호 취됴를 맛치고 요사의 평양디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ㅎ얏다더라

獨立團員 金永祐公判은

불ㅣ간되구번뎡 셔귀뎡ㅎ에뎡

평남디구부싱 당시주소부뎡길 김영우(金永祐二七)는 병용혁인월시나봉ㅁ섬 셔쇼번ᄂ밧지나사 왕복순(王福順)의 집에서 황일청(黃一淸)과 및 김원수(金源洙)를 면회ㅎ고 황일청의 주창으로 조선독립을 위ㅎ야 진력ㅎ디 독립군자금을 모집ㅎ기로 ᄃᆡ모집호 일는 언약 ㅎ고 동년이 칠 팔ㅎ 황ㄱ령 오로 부더 상희가평부ㅣ셔 밥힝ㅎ야 나고홍ㅎ는 꾸치즁서(公債證書) 빈미와 공치모집에 유중지 안이ㅎ면 위협뎍으로 사용홀목뎍으로 한자루와 탄환 팔두기를 수쉬ㅎ후 긔취수와 농반ㅎ야 잠업ㄱ의 주룰 ㅅ유ㅎ야 경성에 드너와서 군자금모집에 동분서주ㅎ고 다시 윤련삼월 쇠팔ㄷ 경공부싸고 다공ㅣ에서 김철수는 누더 관청을 파괴ㅎ라는 「다이나마이트」 이십쳘기와 「뢰관」 말기와 「도화선」 십일미를 수ㄴ야 군자금모집에 데공ㅎㅎ야 사회의 안녕질셔를 문란케ㅎ고 디쳐팔닉계령 데칠호와 츄포화약류 취데규측위반범으로 쳬포된 사건은 디구디방법원에서 ㅇ리 심리즁이든바 임의 심문을 맛치엿슴으로 불일간 송본(松本) 나량정검사(松本輸事、奈良井檢事)가 렵회호후 공판을 긔뎡호더이라더라

古賀拓殖局長官은 瀆職과文書僞造罪

이편판미의 리익금먹은 것이 실로 이십팔만여원

오면문예여니 무어어니ㅎ야 쇼에통분어 평장ㅎ던 척식국장관 고하렴조(殖局長古賀廉造)씨에 더한 부졍힝위라ㅎ는 사실은 지금ㅅ지도 ㅇ직 ㅅ쇼문뿐이오 그진위를 ㅇ지못ㅎ던바 요사이에 ㅇㅇ씨로브터 독직죄 문셔위조죄(瀆職罪文書僞造罪)도 동경디방재판쇼 티면후(太田黑)검사뎡에게 고발이 되엿ᄂᆞᆫ되 그 고소장의 리유ᄂᆞᆫ 오리와 갓더라

고하씨는 디청칠년십일월 씨는 이와갓치 십복사로 파

아편총국 리사 (鴉片總局理事)를 임명ㅎ야 고하(小畑貞太郞)으로 계연부 사긔의 십복되는 쇼면청탄(?) ㅇ정에 무관도 명쇼티량 (稻葉?太郞)씨 동청ㅈ무관(關東廳事務官)으로 임명ㅎ고 또 ㅇ뎐(?) 영뎐을 시허고 등청에 ㅇ 광(小野)씨상으로잇던 (大連)민정서장 졍광(?)씨도 당시 빙도민정서에 씨의 천ㅈ되도 최식국장관으로잇슬ㅈ 여동

고하씨의 집예츌입ㅎ야 쇼복이 되야 잇는 포원긔보(浦治郞)씨을 헌병셔 씨게 소기ㅎ야지고 부평힝위를 힝ㅎ것에ㅎ셔 ㅎ되 그부평힝위 ㅎ던 고하씨가 포원긔보씨와 협의ㅎ야 니 ㅣ 이것은 대정칠년ㅅ동안에 ㅇ월간만 칠년동안의 사실이 에 덩팔쳔 칠십만 부터 디 뎡 ㅣ년 관동청 으ㅈ편독미 무독 계 (杜鵑)

ㅇ고 이편을 일본에 디치 ㅎ야 사팔 명 ㅣ 일 ㅣ ㅇ 자 ㅣ 사 관ㅎ 만ㅣ 이 부 위여 (?)ㅣ 삼 복 되 ᄂ 사 팔 을 사 용 ㅎ 야 그 아 편은 부정한리유 의 로 권부롤수 ㅎ야가지고 그ㅇ면은 또 포 씨를ㅅ용ㅎ야

고하씨는 집예 ... 삼정물산 (三井物産)기 다상명에 팔엇는디 이포원긔보씨는 최식국의 사ㅣ마닥 넉넉지팔입되는 ㅣ씨는 익을엇어 그ㅎ익이 실로 어십팔만원이상이나 되엇ㄷ디 그금익은

소면발포 씨 (小畑貞) 오도 디련청금은 힝ㅎ잇 나게인포ㅎ얏고 그중에 칠만을 원ㅣ은 리 부분은 최천가 셔고하씨 ㅣ 쇼 청(?) 만은 ㄷ 삼복의 문ㅣ 즉 (浦治) 유ㅎ야 동경청금지뎡에 면보와 고하씨와 약속ㅎ뒤에 푸(浦) 씨가 디련 잇셔가지고

동경으로 돈을보닌인것ㅣ오 고하씨도 돈보니는적마나 자긔의 친필노포를 쎄버리셔 평ㅎ고자긔가청수안것인디ㅣ

리익의분비 (?)밧은것은 쥬(?) 세 오로부터비밀노보고한바어디이 상눈식민디감독관 (植民地監督官) 오로써

직죄에 회당ㅎ고 또고하씨도 본물의회(議會)에셔 국헌방당 (?) 요마(?) 오로부터 오 며사건의 일문안을ㄷ츨ㅎ다가 낭락을당ㅎ 고이일십칠일에 정부동경지뎡장 퇴성국장(北金東?支店長最上?藏) 씨에게

이원ㅎ야 ᄃᆡ련에잇는쇼면(小畑) 으로부터동경에 (浦尾)에게돈보니 인령식의

증명서류 수기불천의일즈도작성ㅎ야달나ㅎ야 의회사법가 건의 중방셔류 의셔는 예출 ㅎ얏스니이것은문셔위조죄에 회당한다고ㅎ 얏다더라

郵便物收集에 自轉車使用

근々히실힝ㅎ다

셕지는 모ㅅ삽주수를 쵸파ㅎㅎ다고오수ㅎ며 일방으로는 약사만원의 공비예산으로 건축ㄱ기시ㅎ 본관의 공사도 임의리쵸공사를 종요ㅎ얏슴은 더되더라도 ㅅ월이ㅎ일까지노컨 부준셔되야 칠월상순으로써 홍힝할예뎡이라더라

우편물체송에 디ㅎ야 신속ㅎ기를 계도ㅎ야 구입ㅎ 자동차는 테치와 성적이 모다 양호흠 결과를 어든 경성우편국에셔는 다시 걸졍시ㄴ우ᄋ 물ᄂ취집에 적당ㅎ 셜비ㅎ 자뎐거를 사용ㅎ야 우편물취집상 신속을 계도ㅎ야 근々히 실힝할터이라더라

清津에入港혼 露艦에 鼠軍

지나인팔명이 흑사병에걸녀

본월이일지부(芝罘)에 입항ㅎ 산동을 국의유합ㄴ 긔선 긔셰(?)「기시노」(露國義勇艦隊)호는 포렴으로부 터청지항 항에 츌ㅎ엿는 ㅣ 그승긱 중에 ㄷ 지나인팔명의「흑사병환자가이 셧슴으로 목ㅎ 뒤호잡ㅎ이라더라

女子安敬信等逮捕

平北警察部爆彈犯

안경신은 평양고등보통학교 기예과를 졸업ㅎ 자

작년팔월삼일밤에 평안북도경찰부에 폭발탄을 던진 범인의 일부는 평남경찰부의 디활동ㅎ 결과 즉시 톄포ㅎ얏던바 요사이에 또 그범인되는 평남디동군셔경면 안경신(平南大同郡西京面安敬信三四)외에 다섯명의 공범자를 평양니동량쇠에셔 톄포ㅎ얏는되

그죄상을 들어보즉 안경신은 원리 평양녀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技藝科)출신으로 저 작년십월경에 평양부 셔문통에셔 군즁을 선동ㅎ야가지고 ᄃᆡ한독립만셰를 고창ㅎ 협의로 구류ㅣ심구일에 처분을당홈

녀자인ᄃᆡ 작년이월경에 김힝일(金行一)이란자와 갓치 상희로 건너가셔 가정부원들과 셔로 긔밀을 통ㅎ야가며 왜렴ㅎ더니 그여마참 미국의원단이 동양케국을 시찰ㅎ차로 조선을 통과ㅎ다ㅎ을 듯고 이긔회를 타셔

큰소요를 이르커가지고 미국의원단에게 실현코자ㅎ야 독립사상을 그텅혈ㅎ 동지자와 계획을 뎡ㅎ고 가정부에가 이 춍파기라무긔를 가지고 드러와 인민을 위협ㅎ고 현금과 장유련ㅎ 호범무(胡範武)에게 셔모ㅣ커 ㅣ식권총 비자루와 폭탄 세기를 밧어가지고 즉시 평양 산진(?山)방면에도 또그남향으로 기러를 가랄ㅎ엿고 또人밧게다수ㅎ야 엇지 인원 수회 기청에셔불교의강연ㅎ러이라더라

柳宗悅氏來朝

리청군모씨게 편지가도착ㅎ얏다

조선미술을 위ㅎ야 경셩 미술관을 건설코져 ㅎ는 동양 미학교슈 류종열(柳宗悅)씨와 힝은 쇼을 쵸 조선에 건너와 경성에셔 음악회를 기최ㅎ고 당디를 경유ㅎ야 평양으로 향홀터이라는 ㄷ 류월 류일 브터 십이일 ㅅ지 기성에 ㅅ치 일자의 지청ㅎ 후원을 ㅎ야 닐 당일의 나는 청보가 ㄱ셩군모씨에 게리착ㅎ얏슴으로 그젼 보를 밧은 모씨는 고려청년회 후원 으로 지금 브터 딕 々 힉 활 즁이라 더라 (기셩)

城津郡에 軍資金募集員

셩진경찰셔 원의디활동

본월오일오후십시에 함경북도 셩진군학동면룡포동 (咸北城津郡鶴東面龍浦洞)에는 군자금모집원이라 칭ㅎ는 조선인 십여명이 라이 천쥬의권오빈쥬는 찬졍인 간에 활당으로ㅎ고 차인된 오빈 쥬는 공모(公募)ㅎ게되야 목하 쥬식을 모집즁인듸 각방면의 신 쇼회강연을 맛치고 작긔일쥬로 셩외 경연 돌 수 이인 면 신입리간된 본월

安武事件의 判決은 十三日

조선시보쥬식회사々장 체청지 뎨(堤貞之)씨 안무천길(安武千吉)씨안 만원 손히비상청구사건의 판결은 오는 십삼일 오젼에 될 이라더라

露國側의冷淡을 憤慨혼朝鮮人

다시니항으로 모라오고져희

본월이일 조선인십사명이 드려 인민의 집을 쇼회ㅎ고 보동으로 청입ㅎ얏다는급보가 청진 경찰서에 일으미 셔원들은 출장ㅎ얏다더라

빌즉이 니항(尼港)방면으로부 터 폐판ㅎ야간 로국「하바로」 후쓰크」 부근의 조젼인은 그곳에 잇는 로국사룸의듸우ㅎ야주 는것이 국히린ㅇ담홈에듸ㅎ야이 ㅣ불평을품고 「오무ㅣ루」의공 항기시와 동시에 다시니항방면 으로 도라오라고 ㅎ는듸 그곳에 잇난 조선인일반은 이곳초차모 나 다른곳으로이쥬ㅎ라 다더라

廿萬圓資本金의 新設京龍館

쥐원상쇼부터 홍업을시작회

신구룡산은 철도、군디등을 위시ㅎ야 일본인의 거쥬자는 점 々다수에 달홈을 불구ㅎ고 오락긔관이하나도업셔 그곳에거 쥬ㅎ는 누구던지 불편을 감ㅎ도더 이더니 이번에 강동 권청 상、삼산(前川上田森山) 기타 ㅇ남유력자 수씨의 발긔로 룡방 면의 발젼칙을 조(一助)로ㅎ야 활 동상셜 성룡관 으사업을 계승ㅎ야 활동사진 기라흥힝 부 터 사업의 (一영ㄴ흥)입목 덕으로 자본금이 심만 원사분의일 불입으로셔 사 업을 기시 팔 더인 주식회사 경룡 관은 예상과 갓치 착々진보되 야 일반시민의동경울환 과ㅎ고 총쥬수(總株數)사천쥬의니 반쥬 라이 천쥬의권오빈쥬는 찬정인 간에 활당으로ㅎ고 차인된오빈 쥬는 공모(公募)ㅎ게되야 목하 쥬식을 모집중인듸 각방면의신 쇼회강연을 맛치고 작리일흥로

私立避病院에 寄附金

경성부민 두차보도한바와갓치 경성부민 사리폐병원설립긔성회에서는 긔후의 긔부한방명과 금외은아리 와갓더라

前金壹萬四千百八拾圓也

閔裕植一百圓 金世顯十圓
朴政茂七十圓 李仁淑十圓
金溶치五十圓 金光鎭十圓
文憲?二十圓 金敬植十圓
韓弼熙二十圓 金漢基十圓
李昌熙十五圓 吳基泳十圓
根秉均十圓 千世用十圓
金昇鎭十圓 姜泰赫十圓
李澤?十圓 馬賓敎十圓
女宮?十圓

以上合計四百〇五圓

累計壹萬四千九百八拾五圓也

佛教講演會

佐々木裕佛居士 인쳔、수원、긔셩

에셔이십이일ㅅ지

일본보도한바와갓치 오린동안 남조선방면에셔 순회중이든 쇽 불거사(佐々木裕佛居士)쟉々목 황마사(佐々木?麻師)는 경성이남의 쇼회강연을맛치고 작긔일흥로 인쳔 수원 긔셩에셔불교의강

◁수원 십삼일오후는시반브터 슈원셔본원사에셔강연ㅎ고 신오일오젼십시에는 수원청년상원쇼(上原陸)씨초ᄃᆡ강연(일반방쳥환영)
◁인천 이십일오후칠시브터 이천상업회의쇼루상에서 강연ㅎ고 이십일일오후칠시브터 사젹셔본원사에셔강연
◁긔셩 이십이일청오브터 긔청쇼학교에셔강연ㅎ고 동일오후칠시브터는 긔셩본원사에셔강연

大鯨拾得

元山港附近에서

신창ㅣ긔십여쳑 가외ㅣ소빋여운

본월팔일에 조선인의 어선일쳑이 원산항 근에서 고기를 잡는중에 가리륵 여쳑이나되는 고리(鯨)가 떠잇는것을 발견ㅎ고 즉시 원산항으로 설고드려와서 원산경찰셔에 신고ㅎ얏더니 유상셔에셔는 항만취상(港灣取締上)에 이것을 유디에셔러니일수는 업다ㅎ고 송뎡리양일쳔(松亭里陽日川)게 옴기여 아직 익이 잇스리라고ㅎ더라

明治大學의紛糾

木下학쟝의 셩실치못혼 힝위가 폭로ㅎ야 학싱등은 더욱이 크게 분개혼다

일본명치디학에셔는 목하학장(木下學長)건도학감(田島學監)의 비회와 셰쳔(笹川) 식원(植原) 량교수의 봉직운동으로 우요사이 또 목ㅎ학쟝 죽치못한힝동이 폭로되야 학싱측에셔는 더욱 분긔ㅎ야 칠일오후륙시 과렴관 에셔 실학위원 삼십여명이 참집ㅎ야 여러가지로 협의한 결과 선결문데로ㅇ야 전긔량교수의 복직을 긔도ㅎ야 복직긔셩동맹을 조직ㅎ고 일층ㅎ후홈믿음 결뎡ㅎ얏는뒤 봉뎐(蜂田)외사명의 실힝위원은 팔일오젼팔시 천니계곡의 학장집을 방문ㅎ고 희망을 진술홈이 학장은 데퇴(데辭)리사가 종런 여러가지문데에 디ㅎ야 학장의 중간에셔 관계ㅎ터인즉 데퇴ㄱ파회견ㅎ고 도라오ᄂ 화요일ㅅ지 반답ㅎ겟노라홈으로 위원등은 당일오후 디학으로 도라와셔 다시 위원일동에게 보고ㅎ고 협의회를 기최ㅎ바 십일교장으로브터 히담의 여하에 의지ㅎ야 최후의 치치를 ㅎ기로 ㅎ얏다더라(동경뎐)

하리스博士長眠

작년가을이래 로병으로 인ㅎ야

讀者慰安會

본사의 주지국에셔 여러독자를 위ㅎ야

본사의 쥬지국(義州支局)이 셜립된지 삼삭이 되지못ㅎ야 일반유지자의 찬셩으로 독자가 다수에 달홈은 실노 감사ㅎ바이어니와 이에ㅁㅎ야 그 감사ㅎ한 ㄸ스을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키위ㅎ야 오는십이일부터

독자위안회를 양실학원(養實學院)에셔 십오일ㅅ지ㅅ동안 흥실힝ㅎ는듸 당디 일반유지쳥년제씨가 크게 환영ㅎ야 작자지얼(自作之孽)이란 문뎨와 누구의 죄란ㅇ데로 신파연극을 무로도 홍힝ㅎ야 또ㅎ 당디에 아쇼교쥬일학교(耶蘇敎主日學校)ㅅ서 음악ㄴ를 무료로 ㄱ부ㅎ야 일반관람자의 진々ㅎ 흥미를 돕게홈으로 만장남녀가 홍회ㅎ눈날을 손가락을 곱아가며 기다리는터이며 배로맘ㅎ면

독음방쇼

승화시라풍셩

도 오름답거니와 찬란ㅎ 장식

銘木佛像開眼式

목포지국

입의 귀지한바와 갓치 지금부터 오빅팔십오년전에 지나원동년간(元紀年)에 익주(益州)이언도사(伊藤道士)를 미장ㅎ 회ㄴ셩목친항가라독(銘木沈香가羅木)은 그후 경셩에 잇는하야(下)

음식덤핌

오월사일 오후이시쯤되야 검차도리뎐옥 린금티랑(林今太郞)과 조셔순사 오월사일 천긔현ㅣ순사는 타구(唾壺)고도 쥬이 집에 나와본즉 엇지ㅎ야 타구 엇지ㅎ야 본셜비치안이ㅎ엿 ㄴ나고 질치리런옥은 밋쳐셜비 치못ㅎ엿스나 이제로브터 곳 셜비ㅎ겟노라고 디답ㅎ얏ᄂ디 조천인순사 린금티랑이란사ㄴ 일본말로 『쇼라 나마이기 가사 마 에가 쥐쇼 ㅎ며 욕셜 을 ᄂ고로 련옥은 붓그려운태도로 긔기를숙 고 잇셧다

님슈사는

련옥을보고경관의게 밍 말 ㅎ는디 왜고긔 숙이 는야고ㅎ며 경관을 멸이싱각 는것이라고 다시일본말로욕 셜을 ㅎ는디 문맛게셧든일본인슈 사천ㄴ 각쟝은닷자곳사로구두 를신은치로 방으ㅁ뚝여드러가 노파의 떡살을 치허들고 마루도 나와 유도식(柔道式)으로메여 쳐 노파는 청신ㅎ시 그디로떠러 처 다리팔을

중상ㅎ얏다

집안사람들 은 엇지홀줄을 모르다가 분한 마음을 참을수 엄셔 당디텁도병 원에 가셔 진단셔를 ㅎ니여그 잇흔날(五月五日)검사국에 고쇼 홈 ㅣ라ㄴ디 쟝차당국에셔ㄴ 엇 더 케처분홀넌지 좌우군인민의 시ᄂ 모르겟스나 엇더호처분을홈 실ㅎ 지산안령질셔를 유지홈에ᄃ 더한다ᄂ 경찰관 로셔 이와 갓흔 것은 예헤이자 ㅅ 다

飲食營業主를毆打

唾壺設備치안이ㅎ얏다고 일본인순사로상디자로 검사국에고소롤데츌히

셤에 잇는 이러ㅈ 실학등 교동일 쇼도 목포부남교동일빅유번 디(全羅南道木浦府南橋洞一百六番地) 에서 음식뎜영업ㅎ는 리연옥 李連玉五四)이라ㄷ녀자는 본월오일에 목포경찰셔에 근무ㅎ는 본인순사 천ㄷ각상(千野)가 발견ㅎ엿ᄂᆞᆫ듸 동씨는 이것으로셔 식품상(佛像)을 도각ㅎ 는 데그 언 ㅅ 섞 려혼 위로 기위ㅎ야 본년삼월에 집모식 (孰刀式)을거힝、엿ㄷ듸 오미 타여리(阿彌陀如來)의좌상(座像) 괴십이 광ㅎ(一光佛)은다 엿습으로 씨는시ㄴ 각유력자 와각사(各寺)의 총ㅅ 동ㅅ 빅오십 여명을초ㄴ ㅎ고 각승려를초빙 ㅎ야구일오젼구시부터 남산뎡 본원사에셔 기안식을 거힝ㅎ 야셔 황을 일보엇는디 발건사 하야는가라목 천부를 동회에 게 ㅅ 엿ㄴ 디동회에서는 각방며 이 롸 ㅇ 야 상을가방 넌 으로 반 고 ㅎ고 리익금이 잇슬쌔에 ㅣ 이것을 자선사업에사용ㅎ자 고결의ㅎ 후 오후네시에 산회ㅎ엿 다더라

교육자료

에출고키위ㅎ야

쇼흔 시몯에 눈을 확홀ㅎ고 청되ㅎ는 법졈은 독자에디ㅎ야 도무료로 입장을허락ㅎ고 기 타관계자도 디인은 십젼쇼인 은이십젼으로ㅎ야 경비를보츙 케ㅎ고 만일나딘 것이잇스면 양 더이른 더라(의쥬지국)

실학는 ㅁ두ㄴ 기ᄃ ㅎ고 ᄯ ㅎ 독사에 무료입상을허락 ᄒᆞᆫ 라도의 일보를 ㅎ야 관회시 괴룰리용ㅎ야 구ᄂ도경우 ᄂ 삼긔월선 ㅁ 이 ㄴ니면 무료입상을 허 치안이할 송뎡리 희수욕장 에셔 반하싱 이 개관홈 식히 쥴작뎡으로 당국 과교셥한결과 어섬을리용ㅎ야 다시회슈욕장부근으로 옮어 너여 일반에게 관롬쇼식혓는ᄂ 이 고 도 ᄂ 고 리들비고 낫시 것흔것을 먹엇거나 또 는 미우 이상ㅎ 되 이것은 희부 나 ㅎ 간즉은 지 입엉 되 일쥬 ㄹ 여 고 ㅣ 이 암 실 로 화 ㄱ 실 이 잇 겟 스 며 그 오후가 안 이 면 알 슈 가 스 나 여 는 ᄂ 닉 로 화 ᄀ 일 이 잇 게 스 며 그 고 기 는 비 료 에 나 쓸 것 이 오

결코먹지

는 못할 것임으로 팔뷤밤에 수츌식품회사원산지 (輸出食品會社元山支店)에 셔 매々ㅎ기로 ㅎ 얏다 되야 양일천(陽日川)에서 회부 훗터이라도듸 『이시장에도고리가여 ᄂ 말이되 미수ㅎ 회사에서 런번이 나낫셧스나 이와갓치 큰고리는

큰고리는

처음인바이고리 의종뉴는장수(長鬚)라ㅎ난것이 고죽은지는여러날된모양인즉이 부가맛친뒤가 오니면옮기어려 우나후은식료품이 될만ㅎ부는 리나할지라도쇼ㄴ 쓰다 ㅎ 데 틈이 쇼 라 고 ㅎ 더 라

삼정물산

(三井物産)기 다상명에 팔엇는디

海參威學生 音樂團一行

(긔청)

희삼위학성음악단일힝은 당디 비치엇 자미잇는 음악을맛 지고 칠일오전십시렬차로 평 양으로올나가 음악회를기최ㅎ 게 뎌 ㅣ 뎐례 ㅣ 뎨나 구일반 인 예뎡인ᄃᆡ 천여명에달ㅎ엿다ㅎ며 사ᄂ

진남포지국)

大金携帶

銀行에預金ㅎ라는 형의돈을동싱 이가지고도망

복포ㅂ영셩(木浦府榮町)에셔롤 산리쥬ㅎᄂ 비봉弁(裵奉休四四)는 지나간오월삼일 자긔셔 뎨(庶弟)비봉고(裵奉高)를식혀 쇼선은힝지뎜에가셔 예금을ㅎ 고오라고 오천팔빅원을쥬엇드 니 봉고란자는 돈과통장을밧 아가지고나와 그딕로즉시도망 을ㅎ얏슴으로 비봉弁는분긔 가 나 이 ᄋ ᄎ 쇼ᄎ 창을 회고 ᄌ 찰 ᄌ 슈 ᄀ ᄌ ᄀ 잇 ᄂ 다 도 ᄃ 그잇흔날송졍리뎡거장 피차(松汀驛停車場過次)라고쓴 편지가왓슴으로 그편지사연을듸 보건ᄃ ᄒ 야 ...

오호라 우리형데가 피차리 별을ㅎ는것은 실도슯흔일이 라ㅎ겟스나 불가불돈과처즉 을가지고 떠나가오니 오ㅊ 조록 권ㅎ갓흔몸을 안녕히 가지고계시면 이디뎐후에반 다시변리를합계ㅎ야 감허드 립터이즉 그리오시고 이동 싱을찻시마르시요 만약차지 라ㅎ실진듸 공연이수공만들 ᄯ름이요 결국차ㅅ지못ㅎ러 인ᄃ 당초브터차ㅅ지말고이 기년만기다리라는 편지사연 인즉 피봉에일부인을본즉오 월ᄋ 일에 목포일부인이지ㄱ

海參威學生 音樂演奏會

본월구일하오오시경에

회삼위학성음악단일힝이 평양 도착된이후오날성지공교로은사 청으로인ㅎ야평양에셔도음악부 도회를기최ㅎ시못ㅎ고 진남포 (鎭南浦)도나려가이흘ㅎ안극력 립환영을밧고 또 ᄒ 평양에도 회ㅎ셔 부터긔되ㅎ 튼우음악회 를본일에긔최ㅎ 기로니뎡ㅎ고갑 작스럽게당일ㅎ 광고ㅎ후 그날 오후다섯시부터 장되허례배당 니에셔우々악회를기최 ㅎ곳ㄷ 바 너무도창졸ㄷ의일입으로 광 고가 널리못되야관롤긔ᄒ 온 사람이 극히적은ᄌ에더욱 이 아쇼교회당인고로 무도를못ᄒ 다ㅎ야 실도당일에ᄂ 평양련 데가붓ㆍ러울만치되엿ᄂ 듸 그 리도그들은 더욱챵심으로출연 ㅎ야 약간 순셔를진힝한후뎨 회ㅎ엿나더라(평양)

조선고듸

의 예술을 효ᄇ ᄂ 다 모다그 일 ᄒ 게 ᄀ 당 ... 다는 조선고듸의예술을 취번ㅎ 도록위ᄒ야 마 다감ᄋ 로도 ...

되 도 모다그일헙 에 게 ... 노름기여쇼조셕식진미을나와 수로부수입품일어반라되야 경시 쟝니 ㅁ (大洋?) 홈위 조ᄒ야만

放火嫌疑犯 五年求刑에 無罪

밀양군하남면슈산리 김경지(金慶敦二七)는본이월십구일오천 사시 그동리방영문(方永文)의 쇼유인 여초가조쇼에 불을노 왓다는혐의로 부산디방법원의공 판에붓쳐엿든사건은 검사료부 터오긔년의구형을ㅎ얏든바작심 일오젼십시 화천저판장으로부 터증거가다수ㅎ모양이라ᄒ야 무죄로 판결ㅎ엿다더라

紙幣僞造犯

경시뎡 레보

ㅣ련(大連)디방으로부터만주각 디에서다수ᄒ지페위조ᄒ사건 의위범ᄃ 되도자층현쟈균뎐수 산촌하수ㅅ차당(茨城縣筑波郡 川水山村淸水才次郞四五)은안 천(鞍川)잠복중이든바 금월 녹일ㅅ 데포되앗ᄂ 듸 그자ᄂ 조 빅ᄒ말들은즉일본엇던디방 군거디들삽어가시고 지나의 듸

歡迎會의盛況

海參威學生

본사평남지국발긔로 평양디청관루상셔

당디에유지호 청년제씨를망라 ㅎ야 본월구일하오칠시에 되 셩관(大成館)루상에셔 희삼위 학싱음악단일힝을 환영홈을기 최ᄒᆞ얏ᄂᆞ바 본리우일힝이 평 양에처음도착된이후 사룸ㅁ 농 라 추측치못할공교로운사청으 로인ㅎ야 부득이곳진남포(鎭 南浦)로나ㅇ가잇흘동안을 그 곳에셔

멸광덕환

영을밧고념치 도쯔거운 동쳥에 사이여 도 ㅣ 평양으로도라온니 혹환 영회도잇셧고 쥰비엄는 림시 음악회도 이셧스나 모다 그 들에게 만족ᄒ감을쉐치지못ᄒ 앗슴으로 당디 유디청년사회 의셔ᄂ 이것을심히 유감으로 싱각ㅎᄂ듕이더니 겁브터본지 국에이인호고 또ᄒ본지국을 반히동정ᄒ여주ᄂ 평양굴지의 청년고영한(高永翰)군이 이를 절실히부긔ᄒ고 거연히 본지 국을디표ᄒ야 각방면으로 활 동ᄒ결과 당야에도 실로예긔 이상의

뒤성황속

에셔쥬빈간에 얼골에 넘치ᄂ우승을그리고오 리퇴ᄒ고 차이엿ᄂ 동족의셔 회들풀엇ᄂ바 쳐음에ᄂ 회집 실에모히여ᄉ 본사평남지국장 박티성(朴泰成)씨의 환영사와 우원힝의 되표ᄂ 남(南)군의 답사가잇슨후 패할부쌍ᄒ다ᄂ 뎡평이 당디에자々호 김괴연 (金基衍)군의 취미진々훈이야 기ᄀ 한츰버러진어후 곳식장

海外學生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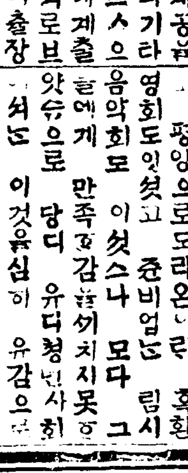
긔청에셔긔연 십이일밤부터

희삼위학성음악단일힝은 십이 일향오에 평양을 발ㅎ야동석 오후오시십분 긔청착급힝렬차 로긔청역에셔하차ㅎ야 십이십 삼량일밤 귀청좌니나 송도고 등보통학교에셔 음악회를기최 ㅎ고 십소일상오에 당디를출 발ㅎ야 ㅎ청으로향ᄒ더이라잇시 삼일은 기청의고적과명승을판 람ㅎ고 동일오후부산동산청에 셔 고려청년회 에ᄂ님위ㅅ청년

宋仁壽家에 強盜

쥬인을동여미고 현금을각탈힛나

지작구일오전팔시삼십분경 달 셩군달셩면신암동(達城郡達城 面新岩洞)송인슈(宋仁壽二〇) 집에는 년령이십이 삼세가량되 ᄂ 자두명이쳐 남ᄒ야 송인수를 결박ᄒ야안치고 현금이십유원 파가 라 ᄒ 야 다 도 ᄃ 도 ᄉ 으 로 도 잡음ᄒ강탈도쥬ᄒ얏다ᄂ ᄯ ᄉ 으로 도 칠성경찰관파출쇼에계출 ᄒ얏 슴으ᄃ ᄲ ᄃ 구경찰셔로브터 다조선인형사 슈ᄉ 녕이현장에출장 ᄒ야 비상선을베풀고경계ᄒ든 ᄎ 협의자일명을체포ᄒ야 본 셔로인치ᄒ고 지금취조즁이라 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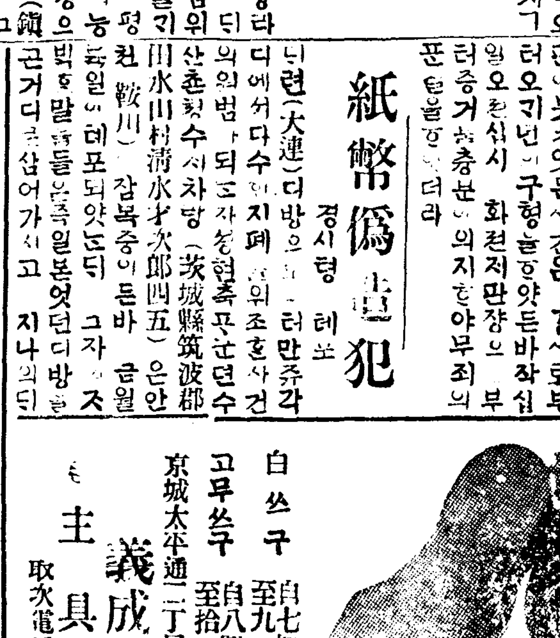


漢城目藥 主効
한셩목약 쥬효

○流行眼疾○血目○星目
一○다시目○쓰레目其他
一切眼病
눈가이가려운디○눈알
쑤시ᄂ디○돌림안질
피발슨디○삼눈가
이진물운디○닷처서압
흔눈○눈물흐르ᄂ디
웃더흔안질에던시신효○

定價 小拾錢 大廿錢

製造 本舖
京城西積善洞百番地의三
漢城藥舘
舘主 安京鎬 鑑製
振替京城六〇七三番



定價 自十一圓 至十四圓

白쓰구 自七圓五十錢 至九圓
고무쓰구 自八圓五十錢 至拾圓

京城太平通二丁目二五〇番地
主 具敎喆
義成洋靴店
取次電話二一九八番

地方注文은引換代金으로

時期에適當혼蹴球靴와白쓰국靴各種特別製造販賣홈 其他各種洋靴經濟靴도隨求應酬ㅎ나이다

廣告

우名貨이俱全케品質을精選ㅎ와實로靑年實用靴될을表示ㅎ겟는이다

天氣豫報

日出 上午五時五分	晴	溫度 最高二十六度
日入 下午七時十三分	自九日 至十日	華氏 最低七十一度

金剛石

朴隱坡 作

十九.

리쇄영이는 그런 죽이두려운즉 악으로 어두어 때려운돈에만 눈이어두어 셔 자식도몰으는 그런부물자 위망이며 엇더케ᄒᆞ든지 자긔집안을 자긔남의손으로다 시일으켜나라는 편심이 여ᄉ 잠미다 사못쳐셔 어린놈셩 삼인를 미국셔지보닌것이나그 미국사람은 원ᄃᆡ훙힝시인속 다ᄒᆞ 삼애를 다리고 미국으 로도라간후로 공부ᄂᆞᆫ 고사ᄒᆞ 고 미일도라단이ᄂᆞᆫ곳은 연 극장(演劇場)밧게ᄂᆞᆫ 업셧다그 런즁에도 그 미국사람은 삼 인을 하로밧비 마술을가라쳐 가지고 식(色)다른 동양인 종으로 金너뎌간푼으로 너여 셰워 돈을좀잡어부라ᄂᆞᆫ 야 심으로 엇던유명한 마술단 일ᄒᆡᆼ에다 맛기엿다 어린종 긔에 삼애ᄂᆞᆫ 공부ᄂᆞᆫ일취월장 으로 진취되아 얼마오니ᄒᆞ 야 삼애ᄂᆞᆫ 마술계무디(魔 術舞臺)에한낫 텬지이라ᄒᆞ 얏고 ᄯᅩᄒᆞᆫ시ᄉᆞ별이리고잇반 이 충찬을ᄒᆞ게ᄶᅡ지되얏다 엇 젼일인지 삼애ᄂᆞᆫ처음부터 다 큰공부ᄂᆞᆫ실타ᄒᆞ고 연극에다 가 자미를부치여 적만큼식 한어린이들의 신괴한지조를 부리ᄂᆞᆫ것에 넘어도부러운싱 각이나셔 별심으로 마술에 힘을쓴것이엿다

그리ᄒᆞ야 삼인은열두살되 든ᄃᆡ부터 무디우에 화형역 쟈(花形役者)가되며 언어가 듯든수양으비손에 ᄭᅳᆯ니여각 디로도라다니면서 쇼업훙힝 을ᄒᆞ기에 죵사ᄒᆞ야 젹지안은 돈을버려주엇다 이와갓치무 디우에사람이되엿슴배부터삼 이라ᄂᆞᆫ의 일홈은니여바리고 텬 마라ᄂᆞᆫ예명을가지고온것이엿 다

텬마가 그와갓치 연극장무 디우에셔 노ᄅᆡ버인말갓치훙 부로자라나며 듯고보ᄂᆞᆫ것이 모ᄃᆞ음탕ᄒᆞ고 방탕한것밧게 ᄂᆞᆫ업스미 텬마ᄂᆞᆫ벌서열네살 부터이셩의사랑에 안기고십 허ᄒᆞ얏고 슈양으미의눈을쇽 々히괴여기지고 졔마음드ᄂᆞᆫ 이셩을맛친것갓치 차즈단기 엿다 차져단길뿐아니라숙 셩한텬마ᄂᆞᆫ 졈々ᄌᆞ시 ᄯᅢ를 빗여갈ᄉᆞ록 피에쥬린식남들 은 모ᄃᆞ텬마々々ᄒᆞ며 ᄯᅩ차 다니게되엿다 이러케지니ᄂᆞᆫ 중에 열다섯살되ᄂᆞᆫ히에 우 연히 갓흔조선사람의관긱호 사람을만나보게되니 곳그사 람은 별사람이아니라 쳬영 이라ᄂᆞᆫ청년이다

"수만리타국에가셔 종족이 갓흔본국사람을만나보ᄂᆞᆫ산애 ᄂᆞᆫ 친형데나만난것갓치 반 가워셔 서로차져단이게되엿 ᄂᆞᆫᄃᆡ 워ᄅᆡ다졍ᄒᆞᆫ텬마ᄂᆞᆫ 언 으덧리쳬영이와 한시라도이 져바릴수가 업슬만치 의졍 (愛情)이 깁허져바리엿다ᄂᆞᆫ 리ᄒᆞ야 버히라도 버힐수업 ᄂᆞᆫ 쇠치라도ᄯᅦ칠수업고 ᄯᅥ 부라도ᄯᅥᆯ슈ᄂᆞᆫ 무쇠운졍 이들엇다。

그와갓치 리체영과정이깁 허진것을알은 수양어비ᄂᆞᆫ오 못조록 리체영이를 멀니ᄒᆞ 게ᄒᆞ라고 별々슈단을 다쓰 다가필경은 텬마양에게 수양부친 갓흔 미국사람은 식졍광(色情狂)이 라ᄂᆞᆫ 그만실 피가되고말엇든 텬마ᄂᆞᆫ인졍 사졍업시 수양의비를비쳑ᄒᆞ 고 쏘로분리ᄒᆞ야 리체영이 를ᄯᅡ라나슨 비되엿다。

그런ᄃᆡ 리체영이는 그ᄯᅢ 에ᄂᆞᆫ 머구시고 엇던광산(鑛山)에서 광부의ᄑᆡ장(牌將)노릇 을ᄒᆞ다가 원ᄃᆡ위인이 술잘 먹고 사람잘치고 계집잘ᄯᅩ 차단기ᄂᆞᆫ 불량ᄑᆡ류도 어느 날은 싸홈을ᄒᆞ고 엇던ᄉᆞ람을 다가 엇던주뎜에서 술을먹 무지ᄒᆞᆫ발길에 엇던사람을죽 이고 감옥에셔여러ᄒᆡ를복역 ᄒᆞ다가 만긔출옥을ᄒᆞᆫ 길로 흉악한(悲漢)이엿다 그런 텬마도 쳐음에ᄂᆞᆫ 리쳬영 이가 그러ᄒᆞᆫ불량청년인줄은 젼혀몰으고 상당ᄒᆞᆫ신사 (紳士)로만짐작ᄒᆞ엿든 그런 ᄂᆞ그뒤ᄂᆞᆫ차々 리쳬영의위인 이그와갓흔 악한인것을 텬 마도몰을엇지만은 위데엇지々 독ᄒᆞ게졍이들엇ᄂᆞᆫ지 텬마라 ᄂᆞᆫ계집인ᄂᆞᆫ 손목이부러져도 리쳬영이ᄂᆞᆫ못놋깃다고ᄒᆞ얏다 못노흔얀이라 이뒤로ᄂᆞᆫ리 쳬영의 불량ᄒᆞᆫ사업을위ᄒᆞ 야 방조ᄒᆞᄂᆞᆫ텬마가되리라ᄂᆞᆫ 결심으로 리쳬영이와지니면 셔 위션최면술과 마술을열 심으로 가라쳐주어 리쳬영 이도 텬마양만치ᄂᆞᆫ 란슉ᄒᆞ 지못ᄒᆞ나 무디우에나아가남 이눈은 곳잘속일만치 만다 러노앗다 그리ᄒᆞ야가지고 ᄃᆡ텬마일힝이라ᄂᆞᆫ일홈으로각 디로도라단이며 쇼업훙힝을 ᄒᆞ며 ᄯᅩᄒᆞᆫ편으로ᄂᆞᆫ 리쳬 영의불량ᄒᆞᆫ수단으로 남에게 못ᄒᆞᆯ노릇도 적지안케ᄒᆞ다가 필경은신용이타락되야 미국 에셔ᄂᆞᆫ 누구던지환영을ᄒᆞ지 안케되미 할일업시 텬마ᄂᆞᆫ 미국의정든산천을 버려바리 고 고국을향ᄒᆞ야도라온지가 임의이년이되야 이와갓치지 나(支那)와 기타로령(露領) 등디로 리체영과 손목을잡 고도라단이ᄂᆞᆫ 텬마양이며리 체영이엿다。

地方通信

李警部金浦郡出張

仁川警察署警部李昌雨氏ᄂᆞᆫ向者本報에報道ᄒᆞᆷ과如히三月分에日本各地로出張ᄒᆞ야視察ᄒᆞ고同來ᄒᆞᆷ은既載ᄒᆞ엿거니와向日에도永登浦에셔視察講演ᄒᆞ고ᄯᅩ又五月十日도金浦도出張ᄒᆞ야日本視察의講演이有ᄒᆞ엿ᄂᆞᆫᄃᆡ傍聽人은滿場의盛況을呈ᄒᆞ얏다(仁川)

誌法青年會討論會

當地誌法青年會主催로五月十日午後八時부터禮拜堂內에셔討論會를開催ᄒᆞ얏ᄂᆞᆫᄃᆡ問題ᄂᆞᆫ人生存在ᄂᆞᆫ他人을爲ᄒᆞᆷ이냐自己를爲ᄒᆞᆷ이냐ᄒᆞᄂᆞᆫ問題下에大討論會가有ᄒᆞ얏다더라(仁川)

崇德學生修學旅行

去三日에平壤崇德學校學生百五十餘名은春季修學旅行次로當地에到着ᄒᆞ얏ᄂᆞᆫᄃᆡ碑石里長老敎會職員一同의案內로築港,飛燈島,三和花園,製粉工場,水源地와其他를見學한後午後四時發列車로歸壤ᄒᆞ얏다더라(鎭南浦)

崇義女學修業旅行

去七日에平壤崇義女子中學校學生百十五名은校長鮮于樑氏引率下에鎭南浦々지修學旅行次로來着ᄒᆞ엿ᄂᆞᆫᄃᆡ長老敎會職員의案內로府內를見學ᄒᆞᆫ後當地金龍淳,朴國輔,朴孝鎭三氏의招待로午餐의饗應이有ᄒᆞ고同午後四時發車로歸壤ᄒᆞ얏다더라(鎭南浦)

龍岡에耶蘇敎傳道

鎭南浦監督青年會셔ᄂᆞᆫ去一月부터龍岡郡谷面萬川里에傳道ᄂᆞᆫ바人을派送ᄒᆞ야熱心으로傳道ᄒᆞᆫ바三十人의新入敎徒를得ᄒᆞ고其禮拜堂은狹少ᄒᆞᆷ으로今後高永鎭氏가熱心으로傳道ᄒᆞ야간다더라(鎭南浦)

經學研究會에셔 感함

撫川 白昌基

우리朝鮮敎育의本意ᄂᆞᆫ個人의性格을修直ᄒᆞ며이지마ᄂᆞᆫ學父兄의나敎育者와被敎育者의頭腦가依舊에未練되야方法의不滿足을免치못ᄒᆞᆷ이라ᄒᆞ며被敎育者의性格이라던지天才ᄂᆞᆫ不顧ᄒᆞ고그父兄과敎育과그家庭의形便과境遇와事情을從ᄒᆞ야無理ᄒᆞᆫ敎育을施ᄒᆞ게됨으로子與任에對ᄒᆞᆫ敎育의義務도無視忘却ᄒᆞ게되얏다 그런즉만흔비엿슴으로敎育이普及되지못ᄒᆞ야悲慘의現象을演出ᄒᆞᄂᆞᆫ가ᄒᆞ에이름이안인가

남의일을오로지ᄒᆞ야주ᄂᆞᆫ것갓치他人의勸勉에被動되야子與任을敎育ᄒᆞ다가意志가堅忍치못ᄒᆞᆫ닭으로趣味못처한드려ᄒᆞᆫ돈工夫로中途而廢ᄒᆞᄂᆞᆫ可憐한悲運에陷ᄒᆞᄂᆞᆫ일도枚擧키不遑ᄒᆞᆯ것이안인가

ᄯᅩ被敎育者自身이完潔ᄒᆞᆫ素養을耐久ᄒᆞᆫ立志가잇서自己의希望을達ᄒᆞ라고多方으로周旋ᄒᆞ고活動ᄒᆞ야普通知識을修코쟈新聞雜誌牛乳의配達或은饅頭나야기이모의夜中行賣의苦難을甘嘗ᄒᆞ고中學程度의學校를卒業ᄒᆞ고判斷力이豐裕ᄒᆞ며意志가堅固ᄒᆞ야自己의理想을實現ᄒᆞ고目的을貫徹ᄒᆞ라ᄂᆞᆫ熱烈ᄒᆞᆫ뜻이잇셔著注ᄒᆞᆷ을길에勇敢스럽게突進ᄒᆞ라ᄒᆞ지마ᄂᆞᆫ그들은不幸히그父兄의理解와同情을엇지못ᄒᆞ고ᄯᅩ社會의容貸의知識을엇지못ᄒᆞ게되며亦是專門의苦學으로ᄂᆞᆫ進行ᄒᆞᆯ수업게되야經濟上能力을잃은그ᄂᆞᆫ有終의美를不得ᄒᆞᄂᆞᆫ苦海에싸진片舟의形勢를不免ᄒᆞᄂᆞᆫ被敎育者ᄂᆞᆫ얼마나만흔가요ㅡ나ᄂᆞᆫ이러ᄒᆞᆫ現象이나의視線에빗칠ᄯᅢ도血淚同情을不禁ᄒᆞ며長歎의悲感을免치못ᄒᆞᄂᆞᆫ바時代에不適ᄒᆞ고個性에不合ᄒᆞ고社會에害毒을遺漏ᄒᆞ던人古代의政治的歷史에不過ᄒᆞᄂᆞᆫ自己의말을남의말로飜譯ᄒᆞ게ᄒᆞᄂᆞᆫ漢文만을우리말로곳쳐가지고다시講道ᄒᆞᆷ을볼적에엇지한낫愚昧ᄒᆞᆫ感觸이라도업슬수잇스리요

勿論敎育者學父兄의誤解나事情을被敎育者가機宜를得치못ᄒᆞᆷ은ᄒᆞ고舍ᄒᆞ고機宜를得ᄒᆞᆫ被敎育者靑年自身이自暴自棄ᄒᆞ야危險이라고牛覺ᄒᆞ며恐怖不已ᄒᆞᄂᆞᆫ바이다

나ᄂᆞᆫ이우에重複ᄒᆞᆫ말을ᄒᆞᆯ여에나의肉身이經學硏究會敎生알해對ᄒᆞᆫ거에나의精神은痛恨의極을感ᄒᆞ며肉體ᄂᆞᆫ戰慄을極ᄒᆞ얏나니ᄂᆞᆫ여기셔講論問答ᄒᆞᄂᆞᆫ聖賢의經書를낫부다거나講究ᄒᆞᄂᆞᆫ그努力을낫부다ᄒᆞᆷ은決코안이다시말ᄒᆞ면그글과그努力과그精誠의그點은讃美ᄒᆞ지만은現今우리處地와現今他人의地位를比較ᄒᆞ며우리의前途이將來를推想ᄒᆞ니

悲者의嗜慾한廢井이올ᄂᆞᆫ잇ᄂᆞᆫ바어다只今업ᄂᆞᆫ覺自己一身ᄂᆞᆫ滅亡ᄒᆞ거나그家庭을傷亡ᄒᆞᆫ今에不外ᄒᆞᆷ이나其實은此와反對로이社會와이民衆에가長久ᄒᆞ야不幸이에ᄂᆞᆫ가장큰不幸을招ᄒᆞᆯ것이라ᄒᆞ니誠ᄒᆞ고잇노라

살오로個人의完性修養은우리社會에發展上功効와生存上幸福만가다시외ᄂᆞᆫ世界人類進化에貢獻파生活上에路를開拓ᄒᆞᆯ것이안인가우리가敎育의必要를感ᄒᆞᆯ지로遠遙ᄒᆞᆫ上古부터이며天才가不絕ᄒᆞᆫ도亦是우리民族歷史가비롯ᄒᆞᆫ배로當今々지繼續ᄒᆞᆫ狀을保持ᄒᆞᆷ이안인가ᄯᅩᄒᆞᆫ政治產業藝術……各方面에天才가第一만키ᄂᆞᆫ우리民族의特色이안인가오ᄂᆞᆯ今日의落伍ᄂᆞᆫ그全責任이敎育의失措에因ᄒᆞᆷ이안인가

勇省猛覺ᄒᆞ라時代에適合ᄒᆞᆫ知識을個性의合致되ᄂᆞᆫ專門知識을敎授ᄒᆞ야實踐 志養ᄒᆞ라今日經學硏究會에萬頭되ᄂᆞᆫ諸彦을時宜性適의新智識을所磨ᄒᆞᆷ에邁往ᄒᆞ라

全誠으로請ᄒᆞ며懇切히願ᄒᆞ노니容貌가갓고言語가갓고風俗이갓고習慣이갓고倫理主張이갓고紀綱을지켜온血統의同一ᄒᆞᆫ二千萬牛靈니同胞를시랑ᄒᆞ며四千餘年祖先의歷史를發揮ᄒᆞ라ᄂᆞᆫ큰覺悟셔第一步로時局의現象못더覺醒ᄒᆞ라舊道德舊思想그디로를主張ᄒᆞ야有望의學校制度를打破ᄒᆞ여야可ᄒᆞ다ᄂᆞᆫ主見으로ᄒᆞ엿ᄂᆞᆫ講論을發ᄒᆞᄂᆞᆫ儒生幾位를볼ᄯᅢ에吾人은熱淚가滂沱ᄒᆞᆷ을不覺ᄒᆞ노라ᄂᆡ가이러ᄒᆞᆫ말을쓰고십허쓰ᄂᆞᆫ것이오니라나의目見ᄒᆞᆫ바某有力者의子弟가告ᄒᆞ기를子任은學校에보ᄂᆡᆺ다고ᄒᆞ얏더니有力者ᄂᆞᆫ말만듯고도奮ᄒᆞ야其子를縱打ᄒᆞ고全廢飮食을五日間繼續ᄒᆞ얏다무엇으로ᄒᆞ야有力者인고經書에熱誠ᄒᆞ고守錢力이堅ᄒᆞ고守舊의主張者이엿다이러ᄒᆞᆫ본을有力者이라ᄒᆞ게되얏잇슴이實是大不幸이며大禍害이라個人及社會를莫論ᄒᆞ고過失이無ᄒᆞ리요만은故之爲善이니라

이題下에愚見痴想을쓰게된動機도經學研究會의德이라고想ᄒᆞᄂᆞᆫ同時에經學會敎生이自己責任을各自推覺ᄒᆞ야이社會改革者이며이社會建設者의重任을履키만切望ᄒᆞ노라

迎日橋上에서

浦項 金石年(寄)

일홈업ᄂᆞᆫ두어집마을(村)압헤
다-ㅅ러져가ᄂᆞᆫ다리(橋)야
너를밟고건너ᄂᆞᆫ사람들도
다-나와갓치悲哀ᄒᆞ드냐
지ᄂᆞᆫ히ᄂᆞᆫ진바름에
그림자만열ᄂᆞᆫ々ᄒᆞ고
길(路)吳훌비고누엇ᄂᆞᆫ다리야
朝夕이마다너를밟고건너ᄂᆞᆫ져
少女
ᄒᆞ르ᄂᆞᆫ물이가져오ᄂᆞᆫ벗나무花
瓣에
芳香이ᄒᆞ르ᄂᆞᆫ즁을보면
져도조고마ᄒᆞᆫ가삼에芳情이실
을지라

我는何如ᄒᆞᆫ人인가

廣州 一樵夫

宇宙間에ᄂᆞᆫ時의古今과球의東西를勿論ᄒᆞ고一平生을誤解ᄒᆞᄂᆞᆫ니가만습니다或은不注意ᄒᆞᆫ犯過或은憂慮를因ᄒᆞᆫ成病或은悲觀의自死或은浮浪에因ᄒᆞᆫ敗等悲運衰境에陷ᄒᆞᄂᆞᆫ事가만슴니다此를運數라ᄒᆞᆯ가自取라ᄒᆞᆯ가迷數라ᄒᆞᄂᆞᆫ것은吾輩靑年의標榜ᄒᆞᆯ말이못되지만自取라ᄒᆞᆯ수밧슴니다此ᄂᆞᆫ卽我ᄂᆞᆫ何如ᄒᆞᆫ人인줄모르ᄂᆞᆫ誤點에서我의良心을暴棄ᄒᆞᆫ原因이올시다我ᄂᆞᆫ決코無用의人이아니오有用ᄒᆞᆫ人類社會의一分子로셔動物中最貴ᄒᆞᆫ人類다운使命을바다가지고出生된것이안인가그러ᄒᆞ면我의前路ᄂᆞᆫ無窮遙遠ᄒᆞ고我의天性은無限히活活ᄒᆞ고我의責任은至極히重大ᄒᆞᆫ我이오食ᄒᆞ기爲ᄒᆞ여衣ᄒᆞ기爲ᄒᆞ여動物中不足數를充富ᄒᆞ기爲ᄒᆞ여生ᄒᆞᆫ我가안인줄自覺ᄒᆞ여야ᄒᆞᆯ거시올시다然則過去의盛事를硏究ᄒᆞ고將來의光榮을企圖ᄒᆞᄂᆞᆫ同時에我의使命인能的能率을活用ᄒᆞ야他日自由舞臺에셔人類幸福을享有ᄒᆞ라면現在에對ᄒᆞᆫ敎育도我, 產業도我, 工業도我, 商業도其他萬般事爲의責任이都是我의게잇슴니다엇지快活最重ᄒᆞᆫ我로셔不注意의犯過이니憂慮의成病이니悲觀의自死이니탕敗의浮浪이니ᄒᆞᄂᆞᆫ意志薄弱의語句로人의耳目을驚악케ᄒᆞ리오我를不知ᄒᆞᄂᆞᆫ人士여

謹告

今般本報金泉支局에셔本報金泉支局取次所를仁同郡內에設立ᄒᆞ오니諸彦은右記取次所로來議ᄒᆞ심을望홈

朝鮮日報 金泉支局

今般左記諸氏가辭免ᄒᆞ와本支局과關係가無ᄒᆞ옵기로此를敬告ᄒᆞ나이다

總務 鄭基東
記者 吳冕植
外務員 盧鍾均

朝鮮日報 安岳支局

今般本支局에셔鄭雨容君을廣告部員으로採用ᄒᆞ오니愛讀僉位ᄂᆞᆫ照亮ᄒᆞ시옵

朝鮮日報 金泉支局

廣告募集員兼記者 洪承浩

右氏를本支局에셔採用ᄒᆞ오니愛讀諸氏ᄂᆞᆫ照亮ᄒᆞ시오

朝鮮日報 義州支局

本支局에셔左記丁秀泰氏로顧問을囑托ᄒᆞ엿사오니愛讀諸位ᄂᆞᆫ照亮ᄒᆞ시옵

全羅南道々評議員 湖南銀行取締役 丁秀泰

朝鮮日報光州支局

廣告

辯護士 法學士 近藤守藏
事務所 忠淸北道 忠州支廳前

本商會에셔最上等原料로堅實美麗히泰西流行式으로製造販賣ᄒᆞ오니四海諸賢은一次試用ᄒᆞ시오

商品目錄無代進呈

皮革靴類○經濟靴○短고무靴各種大賣出

現時定價表

短靴	十圓	特上十二圓
編上靴	十二圓	特上十四圓
短靴	十四圓	特上十六圓
編上靴	十七圓	特上十九圓
深護고무靴ᄂᆞᆫ編上靴價格과同一		
編上經濟靴	四圓五十錢	
短經濟靴	五圓五十錢	
木綿經濟靴	二圓五十錢	
特上三圓		

但短고무靴의價格은大小에依ᄒᆞ와區別이有ᄒᆞ오니定價表를請求ᄒᆞ시옵

獨米式洋靴商會
主 鄭桂俊
京城府鍾路下
振替口座五〇六一番
地方에ᄂᆞᆫ代金引換

特別大募集

特約店◆支店◆行商員

梅毒根治丸

一二三期及先後天梅毒을勿論ᄒᆞ고一週日內로永々根治되ᄂᆞᆫ科學的神藥이오니罹患諸氏ᄂᆞᆫ一次試用ᄒᆞ시옵花柳病의病理說ᄋᆞᆫ無代進呈

定價 二圓八十錢 送料卅錢

本舖 京城安國洞一六四 京城藥房

內用 電氣頭治水
主治 痰咳, 新舊積滯, 腦貧血, 中暑, 中寒, 水土不服, 胸腹痛, 下痢, 眩暈
定價 大瓶參圓 中一圓六十錢 小四十錢

外用 電氣涑治水
主治 皮膚病一切, 諸般腫脹, 凝血, 打撲傷, 頭痛, 腰痛, 脚氣, 엇더ᄒᆞᆫ종라도貝効如神
定價 大瓶參圓 中一圓八十錢 小四十錢

右二大靈藥에對ᄒᆞ와支店을募集ᄒᆞ옵ᄂᆞᆫ바勿失此期ᄒᆞ시오下記規則에依ᄒᆞ야直接又ᄂᆞᆫ郵便으로相談ᄒᆞ되左開種類에依ᄒᆞ야保證金을積立ᄒᆞ면許可用紙와保證金에對ᄒᆞᆫ藥品을進呈ᄒᆞ와營業케홈

規則

一、行商員은保證金十四圓을本舖에納入ᄒᆞ면八十圓價格藥品을出給ᄒᆞ야營業케홈
一、支店은六十五圓을積立ᄒᆞ면四百圓價格藥品을出給홈
一、特約店은百二十圓을積立ᄒᆞ면八百圓價格藥品을出給홈
一、送藥小包料ᄂᆞᆫ請求人의負擔홈

以上規則外別無細則이오니以上規定에依ᄒᆞ와申込ᄒᆞ시오大抵以小成大ᄒᆞᄂᆞᆫ營業이世界에頗多ᄒᆞ지만은그러나此外ᄂᆞᆫ無ᄒᆞᆯ줄노思ᄒᆞ오리小資本金으로營業ᄒᆞᆫ紳士ᄂᆞᆫ勿失此期ᄒᆞᆫ고申込ᄒᆞ시오行商員도自己가誠心誠意로行商則一個月에六十以上百餘圓에達ᄒᆞᄂᆞᆫ利益을보오니況次支店特約店은勿論多大利益이올시다保證金이即資本金이오募集은以上二ᄂᆡ醫藥、만이고他藥品은從此ᄒᆞ야酬應ᄒᆞ옵니다(本舖製造品三十餘種)

京城府積善洞百番地의三

梅毒袪根丸本舖 漢城藥館

主 安京鎬
振替京城六〇七三番

五月七日부터全部交換

米國유니바-사루會社
一、寶物 스구린마가진 全一卷
米國유니바-사루會社優等作品
一、人情劇 落日의山道 全六卷
米國유니바-사루會社
連續冒險大活劇
第三回 雷岳의危難 六卷
第七篇 三十卷內의 電光의閃
第八篇 創에捧十八야
第九篇 水底의囚人

優美館
電話 三三六番

갑싸고 경제되고 모양조코 튼튼ᄒᆞᆫ 뎌륙고무신을잇지마시요

중로일정목신월ᄉᆡᆼ번지

뎌륙고무공업쇼

디방에 금인환
전화 七六三

特別大廉賣

本人이十餘年來各種鐵物部販賣業에從事ᄒᆞ옵ᄂᆞᆫ바京鄕諸位의厚眷을多蒙ᄒᆞ와業務가漸漸興旺되엿삽기厚恩之萬分의一이라도報答ᄒᆞ가ᄒᆞ와今般에時期에適當ᄒᆞᆫ左記諸種物品을特製ᄒᆞ와特價로廉賣提供ᄒᆞ오니愛顧諸氏ᄂᆞᆫ從此春耕之節과建築之時에適當ᄒᆞᆫ諸般鐵物을不拘多少ᄒᆞ시고永續注文ᄒᆞ시옵기伏望홈

備品

각종농구、면철、낫갈、철갈、함석、양철
각종건축철물등에특제품
其他鐵物에當ᄒᆞᆫ物品은無不具備홈

京城府南大門通四町目五五番地

(東) 宋東秀鐵物商

電話 二三九番
振替 一七八

賣藥은需用家에信用ᄒᆞᄂᆞᆫ藥을求實ᄒᆞ시이니ᄒᆞ고廉價者를割引ᄒᆞ면顧家의取引이斷切됨은自然之理이올시다趙膏藥은到處洋藥店漢藥局雜貨商界에分賣店을設ᄒᆞ고販賣케ᄒᆞ오니購買時此藥封皮를注意使用ᄒᆞ시오

數百年以來世々秘傳之神方
京孝橋趙家有名製造之膏藥

許可 趙膏藥

本舖 京城府樓閣洞百七九番地

天一藥房

▲主治效能▼

●諸般瘡腫●諸般濕瘡●乳腫●一切無名腫毒等初發時貼付則止●消毒自解되고成膿後에뭇치면外邊에紅暈은漸々消却ᄒᆞ며中心●便利ᄒᆞᆷ니다

▲定價表▼

大 金二十錢 中 金十五錢 小 金十錢

以上百包式을箱子에入ᄒᆞ얏슴

到處洋藥店漢藥局雜貨商에셔分賣홈

製造本舖 天一藥房
蔘茸唐草乾材藥局
京城鍾路

白性煥洋靴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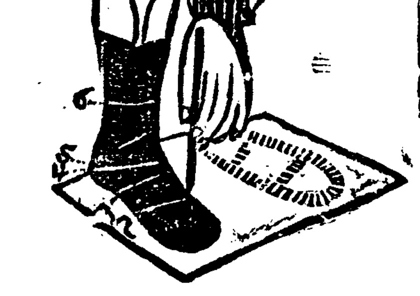
京城鍾路通一丁目
電話三四〇五番
振替口座京城七一〇二番

弊店이開業以來로四海僉君子의愛顧ᄒᆞ심을多蒙ᄒᆞ와業務의益益發展되옴은感謝不已ᄒᆞ압더니中特히今春을際ᄒᆞ와諸般業務를擴新ᄒᆞ옵고洋靴及經濟靴를堅實精美ᄒᆞ게製造ᄒᆞ와廉價로提供ᄒᆞ오니江湖僉位ᄂᆞᆫ倍前愛顧ᄒᆞ심을切望ᄒᆞ압나이다

但地方은代金引換으로迅速酬應ᄒᆞ겟솜

御用達

李王職
諸會社
諸銀行
諸商店



辯護士 李祖遠

事務所
釜山府瀛州洞五九三番地 長電話九一七番
京城府樂園洞一六四番地(舊下於義宮洞) 移轉(長電話三三七三)
(住宅及事務所共通)

京城鍾路二丁目七番地

大昌洋靴店

主 崔在煥
振替京城五二一〇番

最活動的——進取的——신발은

洋靴밧게는다시업습니다 이러ᄒᆞᆫ意義를가진 洋靴를特別히嚴密ᄒᆞᆫ監督과嫺熟ᄒᆞᆫ技術로製造販賣ᄒᆞᄂᆞᆫ斯界의先驅인大昌洋靴를速히試用ᄒᆞ와 그眞價를아르소서

本堂新發明藥

梅毒新藥

試用 一圓
中瓶 三圓
特製 五圓

內服藥

六〇六號代用

요도가리환

本劑ᄂᆞᆫ六〇六號化學變化에基ᄒᆞ야研究發明ᄒᆞᆫ者이온바服用即時全身에廻延ᄒᆞ야注射同樣의作用을起ᄒᆞ며六〇六號以上에效能을生ᄒᆞᄂᆞᆫ故로多大ᄒᆞᆫ高評을博得ᄒᆞ야ᄉᆞ오니于今此良藥을不知ᄒᆞ시ᄂᆞᆫ同病諸氏ᄂᆞᆫ速々注文ᄒᆞ시압

製造本舖 博愛堂藥房

京城鍾路二丁目二十五番地
電話一九二四番
振替六一九八番

地方代金引換
但郵料先金